

성경 공과

제2권

기초 2반 (Basic Class 2)



불붙은 떨기나무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2권

Basic Class 2



아니타 에스. 들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2권 제2반, junior class만을 가지고 기초2반, Basic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반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서 이야기의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 (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글자는 그릇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성서 글자를 통해서 발휘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을 뵈는 것은 성서 글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하여,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되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야의 권능을 맞보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장).

더욱이 성서 본문을 읽고 해설을 정독한다면 엘리사가 요구한 두 뿔의 영검도 맞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14절).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차례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첫 4일)	창세기 1장1-19절	9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창세기 2장 8-25절	13
3. 홍수가 빠지다	창세기 8장	18
4. 아브람과 롯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24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창세기 22장 1-14절	30
6.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	36
7. 감옥에 갇힌 요셉	창세기 39; 40장	40
8.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46
9. 마라와 엘림	출애굽기 15장	51
10. 퀘	출애굽기 25장 1-12절	56
11. 열 두 스파이	민수기 13; 14장	61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여호수아 1장	68
13. 아이 성의 포획	여호수아 7; 8장	74
14. 판관 기드온	판관기 6; 7장	81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상 3장	89
16. 사울의 성급함	사무엘상 13장	94
17.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99
18. 솔로몬의 영화	열왕기상 9;10장	107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14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20
21. 시편에 관하여(2)	시편 19편	125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예레미야 1장	130
23. 에제키엘의 환상	에제키엘 1장	135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요엘 4장 9-20절	140

25.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 1, 2장	144
26. 주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150
27. 새 포도주	마가복음 2장	156
28. 열 두 사도	마가복음 3장	162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마가복음 4장	168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마가복음 5장	174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가복음 6장	181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마가복음 10장	187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	195
34. 성 만찬	마가복음 14장	201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마가복음 15장	209
36. 부활하신 예수	마가복음 16장	216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4장	222
38. 봉인된 책	요한 계시록 5장	226
39. 심판과 거룩한 성	요한 계시록 20: 1-15, 21: 1-7	230
40. 새 교회 날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36

1

창조 (첫 4일)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돌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돌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우리는 무슨 책을 공부하고자 하는가?
- *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 이 책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려 지는가?
- * 성서의 첫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창조는 며칠 동안 되었는가?
- * 일곱째 날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 * 하느님은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이튿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사흘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나흘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다섯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엿새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 * 하느님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Genesis)란 “시작(beginning)”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한다. 제 1장은 지구,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바깥쪽(자연적) 의미일 뿐이다.

여러분은 본과의 끝 부분에서 몇 개의 질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성서 안에서 답을 찾아 적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아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주일간의 순서도 이러한 성서 안의 창조의 순서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애굽기 20장 8-11절을 찾아보자.

과학자들은 지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들이 찾아낸 것 중 하나는 지구의 형성이 수 억 만 년 전이라는 것이다. 이 발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의심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한 곤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 하나의 비유임을 알기 때문이다. 비유란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을 뜻한다. 공부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는 창조 이야기 속의 깊은 의미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본 반에서는 깊은 의미 중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이다. 첫 절에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속의 영혼 안에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우리 속의 보다 높은 본성이며, 땅은 보다 낮은 본성을 뜻한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의 잘잘못에 관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는 싸움이 있게 된다. 그것은 우리 속의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간의 싸움이다. 이때에 높은 본성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낮은 본성은 여러분이 기뻐할 것을 해야 한다고 우겨댄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사실

뭐가 옳고 그른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제 2절을 읽어보면 이런 상태, 즉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텅 비고 무지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 선배 또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결정 혹은 행한 잘잘못에 관해서 설명해 줄 때 갑자기 “알았다 알았어, I see”라는 말을 연발하기도 한다.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육체의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님을 이해할 것이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 보자. 여러분이 아주 어린 시절 처음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빛이 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의 첫째 날이다. 이제 여러분은 창조 이야기에서의 날(day)들이 월요일 혹은 화요일 등의 날들을 뜻하지 않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 혹은 느끼는 것에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시간의 기나긴 기간도 의미한다. “내 시절에는 그랬는데... In my days everybody did so...”라는 대화 속의 날(시절)이 하루를 의미하지 않고 어떤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각 날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속에서의 새로운 단계(step)를 서술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성경 공부 역시 이러한 영적 성장에 따른 단계를 위해 각 반(단계)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각 반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해의 깊이를 더해 간다. 그러나 본 반에서는 간단한 두 가지, 즉 빛이란 진리를 이해함을 그리며 어둠은 무지를 그리고 있음만을 알리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본문에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또는 낮, 밤 하루가 지났다...”라고 쓰이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는 밤, 낮 하루가 지났다”라고 쓰인 이유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7)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질문의 답

- 1) 하나님 2) 성서 3) 우리로 보게 해줌 4) 해, 달, 별들
- 5) 6일 6) 하나님이 쉬셨다 7)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 8) 진리

2

아담의 일을 도울 짝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아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 *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연계의 창조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의 첫 장을 쓰셨는가?
- * 성경의 첫 장은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 첫 사람들이 가졌던 충분히 발달된 심정 상태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 * 에덴의 동산은 어떻게 적시어 졌는가?
- * 어떤 두 나무가 동산에서 언급되고 있는가?
- * 스웨덴붉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 * 설화(신화)에서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 * 성경 이야기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무엇을 보셨는가?
- * 아담의 협조자가 창조될 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가?
- * 주님은 아담에게서 무엇을 빼내셨는가?
- * 주님은 갈빗대로 무엇을 하셨는가?
- * 아담은 여자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 *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앞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가와 특별히 이해성의 빛이 그 발달을 조장함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발달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처음의 인류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즉, 그들은 단순하며 신뢰적이고 무지했다. 주님은 우리가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돌보아야 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하늘 아버지에 관해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인도자로서 주님을 계속 찾은 이들은 매우 선하고 행복한 인류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설비해 놓고 평화와 행복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한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에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에덴의 동산은 “기쁨의 동산”을 의미한다. 설화에서는 이 아름다운 상태를 황금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스웨덴봄은 이를 태고 교회라고 부른다.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인간 본성은 “땅”의 측면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혹은 자신을 섬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많은 이들이 속과 겉이 다르게 처신하여 주님과 자신의 양면 또는 세상과 천국에 속한 것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빠져드는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타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늘 도와주고 계신다. 본문의 동산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는 비유이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다. 본문의 주된 내용은 여자의 창조인 것처럼 보인다. 제 1장 27절의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라는 구절을 보자. 즉, 여자는 이미 창조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는 이야기는 내적 의미를 가지며,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 외에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설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주어진 이야기이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갈 기회를 갖도록 하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도록 만들어져 있다. 두 인간은 각자의 삶 전체를 망라하여 서로가 필요하다. 그 예로 가정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가정을 설비하며 돌볼 의무를 가지며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아버지와 다른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어느 한쪽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구성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 혹은 소년과 소녀는 모두 서로 다르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 도우려고 노력해 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단순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굳이 본문의 이야기를 성서의 서두에 두셨을까 또는 본문에 비해서 그 의미가 단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 좀 더 깊은 속뜻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물론 각 반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차차 이해의 평면을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말씀의 이야기 안에는 더욱 깊은 의미들이 우리의 이해가 열릴 때를 기다리며 숨겨져 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한없이 지속되게 된다. 또한 영적 성장은 이 세상을 벗어나 영계에 들어가서도 이어진다. 주님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뭔가를 항상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

머리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성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뒷부분에서도 이 이야기가 언급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3-8절에서 주님이 바리새이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세에 관한 것과 그를 통해 유대인에게 주어진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단번에 성서 전부를 읽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서를 읽어 나가야 한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 14) 스웨덴붉은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부르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아내
- 11)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 13)황금시대 14)태고 교회

3

홍수가 빠지다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례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례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해설

다음 질문을 통해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자.

- * 성경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가?
- * 이 교회의 사람들을 왜 “아담”이라고 부르는가?
- * 아담은 동산에서 금지된 한 가지 일을 원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 주님은 아담의 일을 도울 짝을 어떻게 준비 하셨는가?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나무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창세기 제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나무들이 등장하는 곳까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처음에 빛의 창조가 있으면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마른 땅은 진리(빛)를 배우기 시작한 후 세상적인 것과 천국적인 것을 구별하게 되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묘사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생각들은 땅 위에 생겨나는 식물들로 그려진다. 나무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상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 이야기 혹은 에덴의 동산 이야기를 되짚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에덴의 동산 형태로 묘사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극히 악해져서 홍수로 멸망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란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그분으로부터만 선과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상징한다. 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자신이 영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상징한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명령되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 흔히 자신을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착각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행함의 시작이 된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점점 더 나빠져 갔다. 그들의 거짓 된 사상들은 점차 넘쳐서 그들의 영적 생명(삶)을 익사시켰다. 이것이 산까지 덮어버린 홍수이며, 홍수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을 파괴시켰다. 홍수란 자연계의 물이 아니라 거짓 사상의 홍수를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기 보다는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소수의 겸허한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사람들로 기술된다. 그들은 평탄한 시기를 만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님께 순종했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새 교회가 건설되도록 해 주셨다. 이 새

교회는 스웨덴봄에 의해 고대 교회라고 불리며, 신화(설화)에서는 은 시대라고 불린다.

우리는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문제를 갖고 논의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우세해지는 여론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의견을 달리 하는 이들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어리석었다고 판단하며 그들을 따른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 속에는 아직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 따라서 그 모임 안에 있으면서도 별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흔하다. 이러한 것은 홍수로 인해 흔들거려 불안정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아주 흡사하다. 홍수란 큰 시험을 묘사한다. 노아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서 구원되었다. 잘못된 것을 행하라고 시험될 때 시종여일하게 우리의 원리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는 내내 안전할 것이다.

노아는 비가 멈춘 뒤 방주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오는 가르침에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을 묘사한다. 노아가 내 보낸 새란 시험이 끝난 여부를 알기 위해 땅 위에 내 보낸 생각을 말한다. 두 종류의 새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까만 새이고 다른 하나는 흰 새이다. 우리를 포함한 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많은 거짓 사상이 있다. 이런 사상이 까마귀로 그려진다. 우리는 까마귀가 밖에 나가서 날아다녔으나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거짓사상이 성취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아는 비둘기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진정한 생각을 그려준다. 비둘기 역시 노아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비둘기는 노아가 만족될 때까지 거듭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뭔가를 추진해 보기 위해서 “노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때에 맞는 승산을 얻게 될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마른 땅으로 다시 나왔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행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쌓고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우리가 시험에서 구원되어 다시금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로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장차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노아와 홍수에 관한 줄거리는 악으로 인해 자멸할 수밖에 없던 전 인류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와 그들이 주님에 대해 심정을 단아버린 후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닫혀진 심정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방법 등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아로부터 시작되어 자라가는 교회가 고대 교회이며 그 교회는 상응에 관해 많이 알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상응이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 나무, 홍수,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의 의미에 관해서 미약하게나마 배웠다. 고대 교회 인들은 상응에 관한 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공부하기를 사랑했으며 상응의 언어로 글을 썼다. 고대 말씀은 그 교회의 시대에 쓰인 것으로, 그 말씀은 우리의 성서 전에 존재한 성서라고 할 수 있으며 창세기의 첫 7장까지는 모세가 고대 말씀에서 취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도 하향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상에 두루 흩어졌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종교 외에도 세계 각처에 고대 교회의 사람들이 소유했던 지식들의 나머지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에 불과한 지식마저 곡해되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받아 쓰여 졌으나 오늘날의 받아쓰기 형태가 아닌 전통에 의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으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며칠 동안 비가 내렸는가?
- * 노아가 내보낸 첫 새는 무엇인가?
- * 그 다음 내보낸 새는 무엇인가?
- *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비둘기는 두 번째로 날아가서 무엇을 입에 물고 왔는가?
- *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 * 이 행동 후 주님은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질문 정리

-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한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17) 제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4

아브람과 롯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 본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

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였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였다.

14장: 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륙,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잔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룻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발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테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륙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프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프레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해설

다음 질문들을 통해 지난 공부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 * 태고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파멸되었는가?
- * 노아는 왜 구원될 수 있었는가?
- * 방주에서 나와 행한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스웨덴북은 노아로부터 자라난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고대 교회인들 역시 태고 교회인들처럼 처음 한동안은 서로 평화롭게 살았다. 그들은 매우 행복하면서 슬기로웠는데, 특히 영적 지식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주님께 관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갔다. 이리하여 서로의 의견이 분분해졌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이 가장 슬기로워서 타인이 자신에게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모여서 평화롭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지상에 흠으려진 이유이다.

창세기 11장 1-9절을 읽어 보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바벨탑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교회 말기쯤의 사람들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리려고 했던 탑은 계곡과 같은 분지-그들 지성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되어 그런 식으로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했다. 따라서 갖가지 이상한 사상들 혹은 신조들이 곳곳에서 뻗어 발생했다. 이러한 발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 대한 예배의 시작을 초래하게 했다. 인류의 실제 역사는 바로 이 시점에까지 추적된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의 기록을 보존하려고 애썼으며, 이로 인해 역사가 존재하는 기록이 있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료들은 고대 황금시대 혹은 은 시대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알려 주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의 제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증명되는 역사적인 존재 인물과 존재했던 이야기들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앞서 우리는 아담과 노아가 인간 형태의 전 세대를 묘사해 줄을 공부했다. 그러나 아브람이나 롯 같은 인물은 개개인에 해당된다. 성서 지도에서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살펴보자. 두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하게 되고자 했으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 보다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보려고 애썼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부터 또 다른 교회를 지상에서 시작하실 수 있었다. 이 교회가 바로 유대 교회가 되었다. 아브람 후에 주님이 바꿔 주신 이름인 아브라함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려 했으므로 선택된 자다. 아브람 역시 그의 안에 갈대아의 선조들이 가졌던 대로 하느님에 관한 잘못된 사상을 가득 담고 있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주님은 그에게 “큰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아브람의 여행길은 아주 길고 그가 가는 땅은 잘 모르는 곳이었지만 그는 주님께 순종했다. 그는 그의 아내 사래, 아버지 테라, 형제 나홀 그리고 아버지인 하란이 죽고 고아가 된 조카 롯과 더불어 떠났다. 성서 지도를 보면 그들이 사막을 피해 북쪽으로 돌아 가야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길에서 하란이라 불리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은 롯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 불리었고 나홀성 이라고도 불렸다. 그 이유는 나홀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 정착했기 때문이다. 테라도 그곳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더 여행을 지속해 나가기 전 그곳에서 죽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더 여행했다. 그들이 “거룩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가나안에 도착해 처음 머문 곳은 세겜이며 두 번째 머문 장소는 베델이다. 그들은 각기 머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 그들은 남쪽으로 더 여행했는데 기근이 있게 되자 이집트로 내려가서 한동안 머물렀다. 주님은 아브람과 롯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음을 발견한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목자들은 가축에게 풀을 뜯기는 장소 때문에 말다툼했다. 말다툼이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 혹은 이웃과 다투도록

유혹되어 진다. 말다툼의 원인은 이기심이다. 아브람은 롯과 더불어 말다툼하기를 거절했다. 아브람은 롯에게 베푼 관대함으로 더 나은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주님은 그의 관대함으로 인해 그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다. 성서 지도에서 베델을 찾아보면 그 지역이 일종의 분지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 먼 거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서 땅을 선택하기에도 적절한 곳이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알맞은 지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목초지를 위한 것만 고려했을 뿐 그 보다 앞에 있는 어떤 것은 보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그 내면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일이 흔하다.

우리는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될 때 갖게 되는 곤경과 비슷한 상황을 롯에게서 보게 된다. 처음에 우리의 친구들은 어리석은 우리 선택의 결과로부터 한 두 번은 구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구원되기 어려워진다. 롯은 낮은 평야에서 살려고 이사했고, 그는 한참 후에 소돔 성문 근처에서 살게 되었다. 제 19장까지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독하게 사악해 멸해져 버릴 때 주님이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 경고해서 그들을 성문 밖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다. 롯이 산으로 도망가기를 별로 원치 않은 때조차도 천사들이 그리 하도록 강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롯은 아브람으로부터 독립한 뒤 인격적인 면에서 더욱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올바르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선택할 때마다 점점 약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이다.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족은 전 역사 과정을 통해 유대인의 적이 되었다.

내용 면에서 위의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도 고집하여 그에 반대되는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산을 선택하지 않고 낮은 평야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이다. 성경에서 산이란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낮은 평야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더 쉽고 자신을 더 기쁘게 할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즉, 이 상황은 언제나 곤란한 쪽으로만 머리를 디밀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롯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무리 잘못되도록 피어도 절대로 나는 넘어가지 않아.”

라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롯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려는 배려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 반을 마무리 지어 보자.

- * 아브라함은 무엇을 제안했는가?
- * 롯은 어느 지역을 선택했는가?
- * 제 13장에서는 롯이 선택한 지역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암시되는가?
- * 제 14장을 보면 그곳이 정말 위험함을 알 수 있다.
- * 롯은 어떻게 포로로 잡혔는가?
- * 누가 롯을 구해서 되돌아 왔는가?
- * 롯이 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 우리 스스로 기도를 해야 하는 내용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 있는데, 어느 문단이 그에 해당되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15)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그려주는가?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4) 제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14) 아브람 15)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을 다 해보려는 상태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령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깔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엮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아브라함의 출신지는 어디인가?
- * 왜 그는 그곳을 떠났는가?

- * 그는 어디로 향해 떠났는가?
- * 그와 함께 누가 떠났는가?
- * 그의 형제 나홀은 어디에서 여행을 멈췄는가?
- *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그들은 제물을 바치러 어디로 갔는가?
- * 누가 그들과 함께 갔는가?
- * 그들은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갔는가?
- * 여행은 얼마나 걸렸는가?
- *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 * 그들은 산으로 올라갈 때 무엇을 갖고 갔는가?
- *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 주님은 제물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 * 하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 * 누가 그곳에 정착했는가?

베델에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 후, 아브람은 남쪽으로 더 여행해서 헤브론에 정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즉, 주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이름이 아브람(Abram)에서 아브라함(Abraham)으로 개명된 곳이다. 히브리 언어의 모든 글자는 매우 중요하다. 영어의 「h」로 표현된 이 글자는 여호와(Jehovah)의 이름에 있는 글자 중 하나이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h」가 더해진 것은 그가 주님께 매우 헌신했음을 의미한다. 그의 아내 사래(Sarai) 역시 사라(Sarah)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 빠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인 사라 역시 남편을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의 여종인 이집트 출신 하갈을 제공했다. 당시 타락된 종교 상태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에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Ishmael)이라는 아들을 가졌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들을 갖도록

해 주셨다. 이 아들이 바로 이사악(Isaac)이다. 이사악의 출생은 일종의 기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들이 탄생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 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 부부가 얼마나 이사악을 사랑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닥쳤다. 이 시험에 대해 언급하기 전 살펴 볼 사항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라는 성서의 구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종종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적절한 부분이므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주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서를 쓰셨다. 즉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글자로 쓰여 지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잘 이해할 때는 진리가 확실하게 표현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분적으로 진리를 감춰지게 하는 거짓 사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마치 빛나는 태양 빛이 구름에 가릴 때와 같다. 그렇다하더라도 빛이 구름으로 인해 완전히 빛을 발하지 못해 캄캄한 밤 같이는 되지 않는다. 빛은 여전히 물체를 볼 수 있게 비춰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구름들은 말씀의 글자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지 알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부모는 언제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 부모의 사랑은 쓰디듬어 주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형태를 취한다. 심지어는 매를 맞거나 벌을 받게 되는데, 매를 맞는 순간에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아브라함은 과거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양육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하느님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값비싼 소유물에 질투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느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가장 좋은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치거나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그의 아들 이사악을 그분께 바쳐야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의 바램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가 취한 실제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기뻐하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삼일이나 걸리는 긴 여행을 한 것과 산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더욱이 칼을 들어 이사악을 죽이려는 마지막 준비까지에 포함된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과정을 그대로 되도록 하셨다. 그 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의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나타나셨다. 즉,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선한 바람을 표현하는 자신의 방법을 갖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다.

미가서 6장 6-8절과 시편서 51장 16-17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단어 “제물”이란 두 개의 라틴어로부터 오며, 이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주님은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용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만든다함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즉 우리 속의 재능이나 소유된 특성을 이용하여 그분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선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이나 새 또는 곡식과 기름을 제물로 삼도록 허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물들이 선한 애착이나 생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사악은 성장하여 히브리 족의 아버지 또는 두 번째 “열조”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사악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늙은 심복(종)을 하란으로 보내어 자기 가문의 여인들 중에서 이사악의 아내를 고르도록 했다.

우리는 제 3권 5호에서 늙은 심복이 하란으로 가는 여행과 주님이 그가 올바른 여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된다. 그 중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이사악의 아내로 선택해서 귀향한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 바란(Paran) 광야에 정착하여 이스마엘 족의 선조가 되었다. 이스마엘 족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들은 아마 오늘날의 아랍 계통의 선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악은 거룩한 땅을 상속받았다. 이사악이 거룩한 땅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와 그 의미를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지어졌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 19) 주님은 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18) 아니다 19) 우리의 인격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6

야곱의 꿈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편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편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편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편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해설

이사악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을 두었다. 그 중 야곱은 히브리 국가를 이루게 된 선조가 되어 하란에서 아내를 구했다. 그는 홀로 여행을 했고 출발 당시부터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여러분은 야곱이 꾸었던 꿈의 줄거리를 기억하는가? 히브리 언어에서 “사다리”란 “계단으로 된 길”을 뜻한다. 야곱은 머리 밑에 돌을 베고 땅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실제로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주님은 천국에서 살고 계시며,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내려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사다리”이다. 돌은 진리를 의미한다. 야곱의 사다리 밑에 놓인 돌이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게 되는 진리들을 말한다. 우리의 생각은 올라가는 천사들이며, 주님의 생각은 내려오는 천사들이다.

야곱 시대에는 관습 -즉 대대로 이어져 내려 온 어떤 것들- 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올리브 기름이 거룩한 것에 속하여 뭔가에 그것을 부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부른다. 태초의 사람들은 기름은 사랑을 의미하며, 모든 진정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알고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함 안에 사랑을 놓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행함 안에 계시게 된다. 따라서 그 행함은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의 의미와 그것을 행하는 이유를 알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다보면 그 모습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을 찾아보고, 특히 5절의 말씀을 거듭 읽어 보자.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주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용기를 복돋아 주셨는가?
- * 야곱은 경이로운 꿈을 어디서 꾸었는가?
- * 오래 전 그곳에서 계단을 쌓은 이는 누구인가?
- * 앞서 배웠던 공부에서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 * 베델은 “하느님의 집”을 의미한다.
- * 여러분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이유를 알고 있는가?
- *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 번역된 단어 “천사”는 “전달자”란 의미이다.
- * 야곱은 그의 꿈을 어떻게 느꼈는가?

- * 그는 돌 위에 무엇을 부었는가?
- *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야곱은 주님에게 무엇을 서약했는가?
- * 두 약속은 모두 지켜졌다.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15) 우리가 가진 야곱의 사다리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3) 하란 4) 베델
- 5) 아브람의 이야기 6) 돌 7) 사다리 8) 주님 9) 천사들 10) 특사, 전달자
- 11)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15) 말씀

7

감옥에 갇힌 요셉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 생긴 사내이어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꺾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꺾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지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도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

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해설

야콥은 그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는데, 이는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이 많았다. 주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그는 부모나 형제들보다 위대해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된다. 이것 역시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밀어 넣어 죽이려고 음모했으나, 결국 그를 죽이는 대신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음모를 짜는 동안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었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다. 본 반은 요셉이 이집트 경호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지는 대목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45장 4-8절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재 연합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사실을 알려준다. 주님은 요셉이 가는 곳 어디든지, 즉 그의 외적 환경에 관여치 않고 그와 동행하셨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요셉은 그의 능력과 정직함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승진되었으나 그를 음모한 자가 또 다시 나타났다. 요셉의 능력과 정직함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요셉은 죄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일할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범죄자가 감옥에서 규율을 잘 순종하고 개선하면 모범수로 인정되어 특전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요셉이 나쁜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파라오란 이집트 왕을 부르는 일종의 호칭으로서 오늘날 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대통령

의 이름에 관계없이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선함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 스스로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님을 자신의 안내자로 찾으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주님은 항상 그에게 진정한 것과 옳은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

두 시종장의 차이점은 글자대로의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 요셉이 하느님만이 꿈의 해석을 하실 수 있음을 말하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곧 자신의 꿈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자신의 꿈을 말하기 전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이 좋은 꿈으로 판명되기까지 기다렸다. 즉,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겠다고 생각될 때만 하느님을 찾는 자였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듣기 원하고 나쁜 것이 말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우리가 종종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속한 것을 그로부터 벗어난 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나중에 가서 약속을 기억했다. 파라오는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그 시종장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또한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과의 약속을 잊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했다. 창세기 41장 9-13절을 읽어 보자.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와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다. 요셉은 그 능력으로 인해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 흉년이 오자 그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초청할 수 있었고, 그들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고,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그들이 이주하도록 도왔다. 결국,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다른 이들이 그를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요셉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우리가 이러한 선한 바램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강건하고 세상에 쓸모 있는 자가 된다.

문답으로 정리

- * 요셉을 음모했던 자는 누구인가?
- *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믿었다.

- *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 당시 파라오의 어떤 시종이 감옥에 들어왔는가?
- *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무엇으로 인해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가?
- *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관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 요셉은 그의 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 요셉은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는가?
- * 그 꿈들은 나중에 그대로 되었는가?
- * 요셉은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 * 그는 그 부탁을 기억했는가?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 10) 우리 삶에서의 요셉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새들이 빵을 먹는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10)
 선해지려는 마음(바람)

8

불붙은 떨기나무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탈리라.”

해설

야콥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요셉은 그의 시신을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안장했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이집트의 장로와 요셉의 형들이 동참했다. 또한 요셉은 죽을 때 친척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갈 때 자신의 몸도 갖고 가도록 하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요셉의 시신은 이집트에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져 관에 모셔졌다. 이는 일종의 향유로 처리됐음을 말한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시신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고대인의 무덤에서 “미라” 혹은 보존된 시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의 풍요하고 안락한 삶으로 인해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야함을 잊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가면 자신만을 위한 것 외에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함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200여년 이상 머물렀고, 그 후 급속한 그들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더욱 강해져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까하는 염려도 했다. 결국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파라오는 그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히브리인의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어머니가 “궤” 또는 덮개가 있는 왕골 상자 안에 그를 눕히고 강가 갈대숲에 놓았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여 건짐을 받았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키워졌고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았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친모가 그의 유모가 되었는데, 그는 친모로부터 히브리인의 전통과 신앙을 배워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지각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느 날 그의 민족 중 한 사람을 옹호하다가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집트에서 빠져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갔다. 성서 지도를 보면, 시나이 반도 남동쪽 귀퉁이에서 그 땅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다시 맞아들인 게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연관계에 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받아들여졌다. 그의 이름은 르우엘(Reuel)이었으나 흔히 이드로(Jethro)라고 불렸으며, 그 뜻은 “탁월함”이다. 이드로란 이름은 명예적 칭호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세는 그의 딸과 결혼했고 그 후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지냈다. 이것은 목자들이 하는 일과 같다. 그는 미디안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하도록 하자. 호렙(Horeb)이란 시나이에 있는 산봉우리 중의 하나로 계명들이 주어진 곳이기도 하다(12절).

모세는 친어머니가 가르쳐준 히브리인들의 전통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만든 그들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과 그 약속이 수백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느님은 그들에게 잊혀져 있었다. 불붙은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에게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음성이 있어야 했던 까닭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모세조차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이집트에 머물렀었다.

주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의 참뜻을 이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은 곧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분만이 “나다(I am)”라고 말할 수 있다. 히브리어의 여호와(Jehovah)는 “I am”과 같은 의미이다. 그분은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고 그를 도울 형 아론도 주셨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심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후반을 보면 성막과 그 속의 가구들을 위해 사용된 금, 은, 보석 그리고 성막의 커튼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들을 접하게 된다. 그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어디에서 얻어냈는지 기억해 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깊이 공부하게 되면 “역지 차용”, 즉 이집트인들로부터 거두어낸 방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모세는 음성이 들린 곳에서 어떤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가?
- * 떨기나무에서 누가 모세에게 말했다는가?
- * 모세가 주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는가?
- * 주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 모세는 그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다.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는가? (12절 참조)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렙(시나이)
-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붙이와 금붙이 그리고 옷 등

9

마라와 엘림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불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영졌습니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불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어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메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해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주님은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구름 기둥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은 기둥이 서면 멈추고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나섰

다. 기둥은 그들을 홍해 연안의 어떤 지점까지 인도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 그들을 추격하기 위한 군대를 풀었고 그 군대는 그들을 바짝 추격해 왔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셨다. 파라오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지만 바닷물에 의해 뒤덮여 삼켜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모세와 백성들은 적이 파멸되는 광경을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본과의 공부 시작되는 부분이다. 적들을 무찔러 기뻐하는 광경을 통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영혼 속의 적, 즉 언제나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속의 잘못된 느낌과 생각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적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43-48절을 읽어 보자. 주님은 우리에게 타인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속의 잘못된 느낌과 생각들을 던져 버리는 것을 주님이 도우셨을 때 그 승리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이며, 소구란 탬버린과 비슷한 종류의 악기이다. 승리의 찬양이 있던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행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고된 시기를 맞았으나 충분한 음식과 마실 물 그리고 밤에 잠잘 수 있는 집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광야에 나와 있으며 천막 안에서 자야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때가 더 나았다고 자주 생각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대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그 새로운 생활은 우리에게 사막처럼 메마른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것은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기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상기하고 계속 노력해 가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 있는 새로운 길을 금방 즐기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바람, 즉 진실로 선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나무”이다.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사막에는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은 곳곳의 오아시스로 가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종려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며 양식을 위해 야자열매들을 수집하고 물 자루도 보충한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과해 갈 때, 그 여정은 사막같이 어렵고 고달프고 길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큰 행복과 평화의 때도 주시며, 여행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한 힘과 용기도 주시고 계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는 오아시스요, 본문의 엘림이 그리는 내용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엘림에서 한 달 간 쉬도록 하셨다. 그 후 주님은 그들이 폭 쉬고 힘을 얻어 다시 여행하게 되었음을 보셨다.

문답으로 정리

- * 모세 외에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가?
- * 그들은 며칠이 지나 마실 물을 발견했는가?
- * 그들이 발견한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 그들이 물을 발견한 장소는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쓴 물을 어떻게 달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 * 물은 진리를 상징한다.
- *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에 관련된 진리를 말해준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말을 달게 느끼는가?
- * 여러분은 무엇이 그 진리를 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 * 그들이 도착한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
- *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질문의 답

- 1) 과일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9) 마라 10) 엘림
-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10

계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리나라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둘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채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채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채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채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룩 돌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룩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룩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룩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룩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궤 위에 얹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해설

광야 여행을 시작한지 석 달째 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11개월간 체류했다. 그리고 십계명은 시나이 산꼭대기로부터 주님께 의하여 주어졌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십계명을 아직 기억하지 못한다면 본 반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다시 찾아보고 암기해야 하며 그것의 의미까지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계명이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법들은 사실 십계명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류 초기 때부터 계명들은 사람들이 알도록 섭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일반적 방법으로 계명들을 알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느 사람들과 같이 그 법이 하느님의 법이요 인간이 지어낸 법들이 아님을 잊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계명과 더불어 그들 삶에 관련된 각종 법들도 주셨다. 법들은 출애굽기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레위기는 그 법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 법의 대부분이 글자대로는 고대 히브리인에게 적용되어 왔지만 글자 속의 의미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안에 갖추어져야 할 제사의 집기들에 대한 지침도 주셨다. 성막은 설치되었다가도 여행 중에는 어느 곳으로든 운반이 가능했다. 그들은 멈출 때에는 즉각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장치했다. 이는 주님께 대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나중에 자세히 성막과 그 안의 가구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본 반에서는 성막 안의 가구들 중 가장 중요한 가구, 즉 증거궤만을 살펴본다. 궤란 하나의 상자로서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속죄판은 궤의 넓이와 길이가 같게 만들어져 궤를 덮고 있다. 속죄판 위의 두 거룩들(cherubim)은 상징적인 모양이다. 거룩은 통상적으로 천사들의 생김새일 것으로 추측된다. 궤 위에 있는 거룩의 생김새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을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 보자.

증거 또는 언약이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뜻한다. 제 22절에서는 주님이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들 사이에서” 대사제와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 궤 앞에서 주님과 상의하여 그분의 답을 받았다. 궤는 성막의 지성소, 즉 가장 깊은 방에 놓여있는 유일한 가구이다. 따라서 지성소는 우리의 심정을 그려주며, 계명들은 “우리의 심정 안에 쓰여 져야 함” 또는 계명에 순종하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편 37편 31절과 40편 8절 그리고 이사야 51장 7절을 읽어 보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성막과 가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재료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살펴보자. 이는 앞서 했던 공부를 되새겨보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3:21-22, 12:35-36 참조)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우리는 본 반에서 어떤 궤를 공부하고 있는가?
- * 「모세의 출생」편에는 또 다른 궤가 언급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 * 본문의 궤는 위의 궤와 다르다.
- *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있는 사막형 나무이다.
- * 궤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 * 큐빗이란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1.5피트 정도에 해당된다.
- * 궤는 어떻게 운반되었는가?
- * 궤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는가?

* 궤 안에는 무엇이 보존되어졌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10)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 10) 우리의 내적 존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11

열 두 스파이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아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블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뎨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뎨,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 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썬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새,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

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열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염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해설

주님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데 따른 상세한 지시와 더불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재간을 갖게 하시어 그들이 궤와 성막을 멋지게 지어내도록 하셨다. 출애굽기 35장 30-35절을 읽어보자.

궤와 성막이 다 지어진 후 구름 기둥은 그들을 광야의 북쪽 끝 근처인 카테스라는 장소로 인도하였다. 그곳은 약속된 땅의 남쪽 경계선에 가까웠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약속된 땅을 살피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서 그곳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모든 스파이들은 그곳이 좋은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의 참고 발언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후손들의 여행이란 우리가 자아 대신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후 하게 되는 여행을 그린다. 가나안의 땅, 즉 약속된 땅이란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을 뜻한다. 또한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서의 삶을 원한다면 꼭 가져야 할 인격을 뜻한다. 우리 모두는 천국적인 인격을 위하여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고 약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영적 발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연장자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그들은 먹을 고기가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고기 가마가 있는 이집트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들은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 떼를 다시 보내주셨지만, 불평했던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재앙도 더불어 주셨다. 또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는 발언을 하며 시기 질투했을 때에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는 벌이 내려졌다. 이것은 모세가 주님께 치료를 간구함으로써 완치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감지하여 천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소경이 길을 가듯 전진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거룩한 땅에 관해 확인하도록 스파이를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스파이들은 땅 자체에 관한 굉장한 사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거주민과 싸워야 함도 보고했다. 천국이 가 볼만한 곳 혹은 살기 좋은 곳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속에는 거인들이 많다. 거인들이란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하는 탐욕 또는 두려움으로 인한 소심함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즐길 수 있기 전에 극복되어야만 한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바램을 눈감아 주거나 옹호하려는 모든 변론들을 상징한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다.

문답으로 정리

* 몇 명의 스파이가 보내졌는가?

- * 그들은 얼마나 지나서야 되돌아 왔는가?
- *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 열 명의 스파이들과 다른 두 명의 스파이들은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 * 두 스파이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 * 두 스파이들은 왜 큰 성벽이나 거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고 생각했는가?
- *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는가?
- * 열 명의 겁쟁이 스파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젓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해볼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세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쪽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은 광야 여행 2년째에 카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겁 많은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선택에 참여한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배회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모세조차

도 한 때는 주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도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0장 1-13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광야 생활 40년이란 주님의 법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긴 역사이다. 비자발적인 순종의 보금자리는 천국에 있을 수 없다. 비자발적인 순종이란 대부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즉, 불순종으로 인한 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순종은 비자발적인 순종이다. 우리가 이기적일 때는 결코 천국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한 땅(혹은 약속된 땅)이 천국을 그린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심정안에 이미 천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국의 생활은 행복한 삶이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함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를 행함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첫째, 부모님들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 그 후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의를 행하는 것이 더 나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후손들도 광야 생활 중에 모세에게 계속 순종했다. 그 이유는 순종치 않으면 그들에게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적인 삶의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습관이 길러질 때까지 의를 행해 간다면, 주님은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심정에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다. 즉,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갈 때에만 천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지성과 심정 안에 천국이 오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다.

모세가 죽은 후 주님께 의하여 임명된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 그는 광야 여행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 용사들의 지도자였으며 수차례 이스라엘 용사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그는 수십 년 전 거룩한 땅으로 용감하게 쳐들어가지고 주장했던 두 스파이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을 알고 신뢰하며 그에게 순종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님께 의하여 주어진 책임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주님께 의하여 임명된 모든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발달되어 올라가는 각 단계에 적용되는

신성한 말씀의 리더십을 그린다. 따라서 모세란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단계에서의 법을 그린다. 반면, 여호수아란 똑같은 법이나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해 법을 기꺼이 승낙하는 단계에 속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승낙한 법을 가져야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적들을 정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내적인 적들이란 전 일생 동안 우리의 지성과 심정을 찰거머리같이 붙어 기어 다니는 모든 나쁜 것들, 즉 미움이나 게으름 또는 이기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상징되는 것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거룩한 땅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전쟁과 시험들이다.

이러한 적들을 인식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용기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세 번씩이나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한 충분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묵상해야 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한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간혹 우리는 자신이 선하므로 더 이상 나쁜 것을 행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즉, 나는 착하므로 나의 양심은 나에게 언제나 옳은 것만을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옳은 것에 관하여 배웠던 것만을 가지고 말한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를 때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한다. 또한 주님은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것을 읽는 중에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 우선, 민수기 32장 1-6절과 16-22절을 읽어보자. 거룩한 땅은 천국을 그려준다. 요르단 강 동쪽 편에 있는 거룩한 땅 바깥 지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적인 생활과 그 생활에서 오는 쾌락을 그려준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즉 음식, 의복, 아름다운 소유물, 음악,

미술, 즐거운 연회 또는 성공 등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심정 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보아야 하고 그것들이 치워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세상의 소유물들을 사용하고 즐기는 데는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열려 있다. 우리가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울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해롭게 만든다. 우리는 룯이 비옥하고 보기에 좋아 보여서 살려고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르단강의 동쪽에서 살기로 결심을 한 2지파와 반지파의 선택이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룯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요르단강 동쪽에서 살기로 결심한 지파들도 동료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고 안착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하도록 당부하였음도 기억해야 한다.

문답으로정리

- * 그들은 카데스에서 무엇을 했었는가?
- *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을 발견했는가?
- * 열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 다른 충고를 한 두 스파이는 누구인가?
- * 백성들은 누구의 충고를 선택했는가?
- * 선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지파
-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3

아이성의 포획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되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였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까.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룰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흠쳐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중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걸렸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췌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쫓아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채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

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뻗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케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케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집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해설

주님은 예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백성들의 어느 누구도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은 금, 은, 동 그리고 철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었다. 금, 은, 동 그리고 철제품은 주님을 섬기는데 헌납되었다.

본문에서는 앞서 우리가 읽고 공부했던 두 장소가 언급된다. 즉, 베델과 세겜이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체류하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며, 또 하나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다. 창세기 12장 6-8절에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의 아이(Hai)는 본문의 아이(Ai)와 같다. 본문 8장에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군인들을 매복시켜 둔 광경도 기억해야 한다. 베델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장소이기도 하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주님이 진정한 범죄자를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전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보인다.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러한 잔인성이 성경에 기록 되도록 하셨다.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되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가 곤경의 원인이 우리 심정 속의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심정 속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명백히 인식하고 인정 후 즉각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안의 악한 애착도 끊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가족”을 파멸시킴에서 의미하는 바다. 간단한 예로, 친구를 시기하는 마음을 방치한 스스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기심은 상대방에 대한 나쁜 생각들의 긴 열차를 만든다. 우리가 시기심을 인식하고 던져 버릴 때는 나쁜 생각도 반드시 집어내서 던져야 한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과신했으나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공격을 위해 전 군대를 배치해 놓고 공격을 계획하는데 자신의 머리를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땅에서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란 우리들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나쁜 것들을 뜻하며 그것들은 하나씩 극복되어야 하는 것들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때로 하나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가 아주 잘나서 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다음 번 시험을 대적하여 패배로 이끈다. 이 패배는 우리로 하여금 매 싸움마다 우리의 모든 심정과 지성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이와 더불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델 쪽에 숨긴 매복 군인에 해당되는 뜻이다.

신명기 27장 1-8절을 읽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자. 세겜은 거룩한

땅의 중앙으로 에발산과 그리짐산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그곳은 두 산 사이에 있는 완만한 경사로 된 골짜기로 분지 형태 또는 원형 경기장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곳은 중앙에 한 사람이 서서 외치면 이 산 끝에서 저 산 끝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서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법을 낭독한 것이다.

세겜은 광야생활 내내 백성들이 운반했던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기도 하다. 창세기 50장 25-26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수백 년 후에 세겜에서 있었는데, 이를 알기 위해 요한복음 4장 4-7절을 읽어 보자. 시카르(Sychar)란 세겜(Shechem)과 같은 말이다. 그 지역은 다윗왕 시대 때에 반란의 중심지기도 했다.

문답으로 정리

- * 누가 명령에 불순종했는가?
- * 그는 무엇을 취했는가?
- *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무슨 변이 생겼는가?
- * 베델이란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 * 왜 백성들이 아이성을 쉽게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 아이성을 공격하려 올라간 백성들이 도망해 올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백성들은 패한 원인이 누구의 탓인지 어떻게 찾아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죄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별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제비뽑기 9) 야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4

판관 기드온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젤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밭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뺏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다했하였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뒤 두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
 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요?”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
 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
 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룻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쪽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

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햇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햇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광질광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찢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빳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쎄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 “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하에 거룩한 땅을 정복했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다.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역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진 후 여호수아는 죽었다. 판관기 2장 6-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 지역 내에 남은 적들을 소탕해 버릴 것을 당부했으며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이 그것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지파는 그들의 집과 생활의 번영에만 몰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적들이 다시 강해져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들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 구해줄 것을 애걸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고정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공격해 온 적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러한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른다. 본문의 역사시대 때에는 요르단강을 건너 온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불붙은 가시덤불」편에서 살펴 본 바대로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 다시 얻은 아내인 케투라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그의 후손들은 광야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도왔다(출애굽기 18, 민수기 10:29-32, 판관기 1:16). 그러나 지금은 켈 가문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다. 므나쎄 지파 출신 기드온은 미디안족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선택되고 준비되어졌다.

성서 지도에서 에스드렐론 평야를 찾아보자. 이 평야의 서쪽 경계의 일부는 모래 언덕이다. 미디안족은 그 산의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조금 더 남쪽에는 하로드(Harod)의 샘이 있는데, 후에 그곳은 “기드온의 우물”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기드온의 군대가 그곳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즈르엘은 구약성서에서 수차례 언급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상 “에스드렐론 평야”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이름하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과 싸우려면 우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부터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는 기드온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군사들로 상징된다. 단지 속에 든 횃불이란 성서의 글자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진리를 말한다. 나팔을 불어 대는 것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데 필요한 우리의 “무기”이다. 이 무기에 대항하는 모든 악과 거짓은 미디안이 서로 치고 받아 죽듯이 스스로 파멸되는 것이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적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기드온이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 받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그는 누구라고도 불리는가?
- * 그는 겸손했고 기꺼이 주님께 순종했다. 겸손과 순종의 두 자질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절대로 필요하다.
- * 주님은 기드온의 순종심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가?
- * 기드온이 주님에게 요구한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인가?
- * 어떤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보냈는가?
- * 주님은 왜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가?
- * 어떤 군대들을 처음에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 * 마지막에 남은 군대의 수는 몇 명인가?
- * 주님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기드온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 * 그는 군대를 어떻게 편성했는가?
- * 그들은 무기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질문의 답

- 1) 판관기(사사기) 2)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판관은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아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몽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룬, 납달리, 므나쎄
-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향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정규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

감을 볼 수 있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멸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해설

여러분은 판관시대의 특성을 기억하는가?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판관기 17장 6절을 읽어 보자. 이 구절은 판관기에서 케나 성막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흑백을 가리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혜가 충분하다고 여길 때, 주님과 교회는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는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늘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처럼 판관시대 때에도 케와 성막은 거룩한 땅의 중심이 되는 곳에 계속 보존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전락하여 주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아주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은 모세의 법도를 지키려 노력했고 예배 의식을 위해 정기적으로 성막으로 가기도 했다. 사무엘의 부모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에 속했다. 그들의 고향은 라마(Ramah)로 에브라임의 구역이며 엘카나가 속한 지파이기도 하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에 관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고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느님이 들어 주셨다”라는 뜻이다. 사무엘이 나이가 조금 들자 그녀는 엘리에게 그를 데려가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이도록 양육해 달라고 했다. 당시 엘리는 늙고 눈이 멀어서 거의 못 볼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의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성막에 가져 온 헌물 중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몫 이상의 것을 착복했고, 백성들이 제물을 봉헌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미리 떼어 거둬고 높은 제사직을 모독했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서 제사직이 끊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엘리는 선량했지만 나약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어린 소년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엘리에 의해 훈련되었다. 15절을 보면, 그의 말은 일 중 하나와 그가 엘리를 시중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듣는 것이란 순종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경청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성경 구절을 접할 때마다 주님이 언제든지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재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는 사무엘의 대답은 그가 주님께 순종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삶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순종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19-21절에서는 사무엘이 주님의 예언자가 되도록 선택되었음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셨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온 백성은 지도자이며 관관으로서 그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마지막 관관이기도 했다.

문답으로 요점정리

- * 당시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 * 최초의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 * 사제의 직분은 계속 대를 이어 내려왔다.
- * 사무엘 출생 당시에는 누가 제사장이었는가?
- * 사무엘의 부모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 * 주님은 몇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 * 마지막으로 엘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일렀는가?
- * “그들이 가진 귀는 막혀 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치 않을 때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 * 주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엘리에게 말하라고 하셨는가? 이를 알기 위해 사무엘상 4장 10-18절을 참고하자.
- * 엘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가?

질문 정리

- 1) 마지막 판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16

사울의 성급함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므마스 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불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불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불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불레셋군은 믹마스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불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불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불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불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불리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불리셋군의 전초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해설

백성들은 한동안 사무엘 외의 어떤 지도자도 없었지만 매우 만족했다. 사무엘상 7장 15-17절을 읽고, 사무엘이 사는 라마와 재판관을 위한 세 장소를 찾아보자. 사무엘은 위대한 판관이었으나 전투하는 판관은 아니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백성들은 다른 국가들이 전투를 이끄는 왕을 가졌던 것을 보고 적과의 싸움을 이끌어 줄 사람을 원했던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백성들이 만족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라고 사무엘에게 이르셨고 첫 왕으로 기름 부을 자도 말씀해주셨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제 11장을 보면, 사울이 암몬족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그 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엄중한 연설을 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지를 물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고 동의했다. 그 후 사무엘은 그들에게 변영하고자하면 반드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사악함의 증거로 천둥과 비를 함께 내려 보여주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고, 주님께 순종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그들과 그들의

왕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다. 불레셋 군대는 므마스에 진을 쳤고 사울은 길갈에 군대를 소집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칠일 동안 기다리며 자신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전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과오 때문에 사람들이 심하게 처벌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과오들에는 주님께 불순종함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고, 그 불순종은 결코 작은 과오가 아니다.

성경에서 왕이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는 원리를 말한다. 나쁜 왕이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만 해야 한다는 원리를 뜻한다. 반면, 좋은 왕이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원리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그의 외모로 인해 선택된 왕이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으나 슬기롭지는 않았다. 젊은이들은 보기에는 사울처럼 매끈하나 때로 성급하게 행동한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타당한지 충분히 따져보기 전에 그것을 타당한 것처럼 간주해 버린다. 군인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상황은 사울에게 전투를 서두르지 않으면 승산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주님은 본과 이전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백성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힘에 의지할 때만이 정복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보다 스스로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재난에 처하게 된다. 주님께 순종함이 우리를 주도할 원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왕국은 길게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답으로 정리

- * 왜 백성들은 사울을 보고 기뻐했는가?
- * 어떤 적이 그들 앞에 등장했는가?
- * 무엇 때문에 불레셋은 화가 났는가?
- *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 * 사울은 어떤 변명을 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사무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가?
- * 불레셋은 어떤 전문직을 장악하고 있었는가?
- *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불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불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불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15)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질문의 답

-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불레셋족 7) 불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들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5)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

17

다윗과 골리앗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둬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 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펴서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였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번을 앞에 세우고 8.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랏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세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볏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울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투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린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

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욱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낫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나?”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올려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욱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아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

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불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불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아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불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불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요?”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불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해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라고 한 말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인격임을 엿볼 수 있다. 새로운 왕이란 다윗이다. 그는 사울처럼 역전의 용사임을 스스로 입증했고, 사울에게 없는 특질 또한 갖고 있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들이었고, 로마제국의 세금을 위한 호적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었다. 주님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중이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기도 했다. 양이란 온순하며 신뢰성 있는 동물이다. 말씀 가운데서 목자란 온순함과 신뢰심 그리고 순진함을 돌보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길 바라신다. 우리는 목자적인 심정 상태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 간 신호이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 사울은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고 다윗은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이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함을 알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첫 협력 관계를 알 수 있다. 다윗은 하프를 켜서 사울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도 불린다. 많은 시편들은 주님으로부터의 영감 아래 다윗에 의해 쓰였다. 시편들이란 찬양의 노래들이다.

앞서 우리는 거인에 관해서 공부했다. 창세기 4장 4절을 읽어 보자. 이스라엘 후손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 왔을 때 태고교회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거인들의 후손들은 그때까지 그곳에 일부 존재했다. 여러분은 열 두 스파이의 보고에 관한 기록을 기억할 것이다 (민수기 13:22-23,33). 여호수아서 11장 21-22절도 읽어 보자. 거인들이란 처음부터 우리의 선조들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의 결과로서 각각의 우리에게 태어나는 이기심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이기심이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뭔가를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고 혼자만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기심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이기심 중에서 가장 혼하고 심각한 것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위한 것만을 취득하려는 상태이다. 이러한 바램이 이뤄지지 않을 때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형태가 가장 심각한 종류의 이기심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으로 그려진 우리 속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매우 크고 강력한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려 부수기 위한 능력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는 그 일만은 해결 못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이기심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과 대결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울의 갑옷은 승리를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다윗은 사울의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갑옷인데, 그것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악이 우리를 침입할 때 그것을 죽이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진리들과 한 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많은 진리들을 듣는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삶 속에서 듣거나 읽은 바대로 진리들이 좋은 것임을 입증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득이 되어 은근히 하길 바랄 때마다 다윗이 무장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윗의 무기인 자갈은 개울에서 오랫동안 물의 흐름으로 인해 매끈해진 돌이다. 돌이란 말씀에서 온 진리로, 우리가 말씀들을 삶에서 적용하여 시도하는 중에 어떤 결과를 발견하고 확인한 후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진리를 말한다. 이는 곧 다윗이 돌을 집어 들어 그의 목동 주머니에 넣은 모습과 같다. 마태복음 4장 1-11절을 읽고,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악마를 향해 사용했던 “세 개의 매끈매끈한 돌”을 기억해 보자. 다윗은 골리앗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올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게 달려 나가 먼저 공격했다. 다윗의 첫 번째 돌은 골리앗의 앞이마에 일격을 가했다. 이는 악마에 대한 주님의 인용문이 시험에 관련된 원리들을 정확히 치는 장면과 같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자르는 상황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의 명백함을 사용하여 우리의 시험에 일격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 후 우리는 자신의 자만심을 옹호하려 했던 모든 변론들을 다윗이 골리앗의 잘려진 머리를 추켜들듯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집어낼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다윗 이후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 * 본문에서 어떤 적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는가?
- * 두 군대가 집결했던 골짜기 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자.
- * 불레셋 군대는 어떻게 대결하자고 이스라엘에게 제의했는가?
- *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 누구의 칼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까?

질문 정리

-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불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불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불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18

솔로몬의 영화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

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시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변명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싯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싯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였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해설

다윗은 전투하는 왕이였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이 피신하도록 도와주었다. 다윗은 여러 해 동안 망명생활을 해야 했으나 사울과 맞서지는 않았다. 주님은 다윗 주위에 용감한 용사들을 모이게 해 주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전투 중에 전사했고, 그 후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는 헤브론에서 즉위식을 갖고 국토의 남쪽 부분을 칠년 동안 통치했다. 사울의 아들 중 하나가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번성하지 못했다. 그가 살해된 후 전 국토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즉위식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통치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궤를 모셔왔고 그것을 안치할 성전을 짓기 원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에게 성전은 그의 아들 대에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궤를 새 성막에 안치하기만 했다.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여 선두 국가가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보다 나이 많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솔로몬을 다음 대의 왕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 솔로몬에게 기름 붓도록 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의 의미이다. 다윗의 통치기간은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보좌에 오를 때쯤에는 미처 정복하지 못한 소수의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쳤고, 주변 국가의 왕과 여왕들은 그 일대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간주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영예와 지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통치 초기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열왕기상 3장 5-15절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제 5장과 6장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건축했던 성전에 관해서 알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그가 지은 다른 건축물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는 모든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 다윗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거룩한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우리가 싸워야하는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을 상징한다고 볼 때, 솔로몬의 통치는 시험을 이기고 난 사람이 갖게 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주 현명하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극복해낸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그 이유는 그가 솔로몬이 주님께 소원한 것, 즉 이해력이 있는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보물 가운데 금이 가장 탁월하다고 한 이유는 금이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문답으로 정리

- * 누가 다윗의 친구인가?
- * 그는 무엇을 솔로몬에게 공급해 주었는가?
- *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 누구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는가?
- * 솔로몬은 거룩한 땅에 잔존한 적들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 *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어떤 여왕이 방문했는가?
- * 그 여왕은 왜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 *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 그 여왕은 솔로몬을 본 뒤 뭐라고 말했는가?
- * 솔로몬이 보물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는가?
- * 은에 관해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15) 본문에는 왜 금에 관한 언급이 많은가?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5) 금은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

19

호렘 산에서의 엘리야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덩굴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덩굴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며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걸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해설

우리 주변에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유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때때로 부주의해지며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이 진리인 듯 착각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간주한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계속 배우며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망각해 버린다. 제 9장의 서두를 보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경고를 알 수 있다. 솔로몬은 주님의 경고를 잊어 버렸다.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자신을 경외하는 타국가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의 우상들을 예배하기 위한 신당까지 지어 주었다. 결국 그도 그들의 우상을 위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우상들과 여인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위풍을 유지시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사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열 지파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로 불리는 분리된 왕국을 세웠다. 그들의 수도는 세겜이었고 반역의 주도자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르호보암의 왕국은 유다로 불렸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솔로몬의 계통에 계속 충실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큰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백성들이 옛날의 진정한 왕에 대한 충절로 인해 그의 영토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예배를 계획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세워 놓고 성대한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백성들의 눈길을 우상 쪽으로 돌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차츰 얼굴을 돌리게 되었고, 여로보암 후의 승계자들 역시 이러한 방침을 고수해 갔다. 솔로몬 후에도 유다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모두 악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은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자였다. 주님은 예언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경고하도록 보냈다. 엘리야는 주님만이 백성들의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실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예언자들을 살해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세벨은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실의를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특히 우리는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룬 것이 없을 때 실의하며 절망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의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의 선함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를 지탱시켜 주신다. 선함과 진리는 엘리야 옆에 놓인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이다. 천사들은 엘리야에게 했던 것같이 우리에게도 해 주신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없을 뿐이다.

엘리야는 주님이 모세에게 시나이산에서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곳에 갔던 것이다. 주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때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 생각해보도록 하는데 까지만 주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은 작고 여리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을 담고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느라 늘 바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조용하게 가다듬고 묵상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이 작고 여린 목소리를 우리의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말씀을 익힌 한도 내에서만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해 두셨던 말씀의 구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담아지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첫째로 해야 할 새로운 것을 주셨다. 그 다음 주님은 엘리야가 자기편은 자신 밖에 없다고 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셨다. 즉, 주님은 이스라엘 왕국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으며 절하지 않은 칠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에서 외투란 우리의 바램 혹은 사랑하는 마음들을 옷 입힌 생각들을 말한다. 생각들은 그 속에 든 바램이 선 혹은 악이냐에 따라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엘리야가 주님의 예언자가 된 후에 그의 겹옷은 주님의 진리가 옷 입고 있는 것, 즉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의 글자를 의미한다. 성경이 가진 글자적인 이야기들은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언자의 겹옷에 해당되는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엘리야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 브엘세바를 넘어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 여러분은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는가?
- * 오래 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 이스라엘 왕국의 다음 왕은 누구였는가?
- * 엘리야의 뒤를 이어 누가 예언자가 되었는가?
- *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던 중이었던가?
- * 엘리사는 무엇을 우선해야겠다고 간청했는가?
- * 그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는가?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숭배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렘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 21) 주님이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숭배, 무거운 세금
-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 13) 호렙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 20)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받을 갈고 있었다.
- 21) 시험 후 조용한 명상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그린다.

20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성서 본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낮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해설

엘리사조차도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없어 그곳은 차츰 더 심각해져 갔고 결국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되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동쪽 지방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구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이 끌려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차츰 흡수되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때로 그들은 성경에서 “잃어버린 지파들”로서 언급되기도 한다.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빈 영토에 동쪽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켜 거룩한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 24-44절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국인의 후손이 신약 성서의 사마리아인들이다.

나머지 구약 성서의 이야기는 유다왕국에 관한 것이다. 유다에는 주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소수의 선왕들이 있었다. 히즈키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선왕이었다. 제 18장에 언급된 그의 업적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 보자. 성경에서는 모든 옛 선왕들이 “그럼에도,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술된다. 아주 초기 때부터 백성들은 산이나 언덕에서 예배드렸는데, 산이나 언덕이 없을 경우 높은 구축물을 지어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상들은 바로 이러한 높은 장소, 즉 산당에 세워져 있었다. 신명기 12장 10-1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 눈에 든다하더라도 아무데서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명령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불순종되었다. 히즈키야는 산당들까지도 철거시켰다. 민수기 21장 4-9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구리뱀은 오랜 기간동안 조심스

럽게 보존되었고, 백성들은 구리뱀을 우상으로 삼기도 했다. 히즈키야는 구리뱀 역시 부숴 버렸다. 백성들이 즐겨 예배하던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관관기 6장 25-32절을 읽고,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을 때 주민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후 유다왕국의 북쪽 경계는 무방비 상태였다. 이스라엘 왕국을 짓밟은 아시리아는 유다왕국 역시 위협했다. 히즈키야는 그들에게 성전의 금과 은을 주며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나 그들은 그것에 만족치 않았다. 제 19장은 주님이 히즈키야에게 해야 하는 바를 알리도록 이사야를 보낸 이유를 설명한다. 이 예언자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를 파괴시켜 유다왕국을 건져내셨다. 그 뒤 히즈키야는 심하게 앓아누웠고 이사야가 다시 그에게 왔다.

아하즈의 시계판(The Dial, 정확히 번역하자면 “등차”일 것임)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계단을 하나씩 어둡게 하도록 계단 옆에 세워 놓은 기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당시는 오늘날의 시계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해시계로 시간을 알았다. 물론 주님은 태양을 거꾸로 되돌아가게,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태양의 경로를 바꾸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다. 이것은 히즈키야의 선함이 중단될 때 유다 역시 퇴조될 것이라는 징조기도 했다. 주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서 선으로 돌아갈 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피상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라는 진정한 진리를 믿게 되어 예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수 있게 된다. 이때는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같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바뀌어 돌아선 자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해시계판이 갖는 내용이기도 하다.

유다왕국도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버린다.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듯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으나 그들 중 일부는 거룩한 땅에 남도록 허용되기도 했다. 그 후 칠십 년이 지나 귀환을 바라는 모든 포로들은 귀환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바빌로니안들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했다. 그들의 후손들이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며 오늘날의 유대인이기도 하다. 특히, 증거궤가

사라져서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음도 주목해야 한다.

질문으로 요점정리

- *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 히즈키야는 그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 * 주님은 히즈키야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셨는가?
- * 이사야는 어떻게 치료하라고 히즈키야에게 명령했는가?
- *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 히즈키야는 몇 년 더 살도록 허락되었는가?
- * 본문에는 어떤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가?
- * 히즈키야는 바빌론의 사절단에게 어떤 사랑을 했는가?
- *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3) 주님의 천사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9) 무화과로 만든 고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바빌론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21

시편에 관하여 (2)

머리말

시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은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해설

우리는 본 반의 시편을 공부하기에 앞서 몇 권의 책을 지나쳤음을 유의해야 한다. 역대기 상과 하,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델 그리고 욥기서는 흥미 있고 유용하여 여러분들이 장차 읽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들은 내적인 의미가 없다. 유대인들은 이 책들과 더불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서까지도 그들의 정경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Kethubim 또는 Hagiographa라고 불러 신성한 저술이라고만 분류한다.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모세 5경)와 전기 예언서(Former Prophets,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에 쫓기는 제외됨), 후기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리고 신성한 저술이 포함되는데, 이 속에는 우리의 구약 성서와 그 외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 신성한 저술이란 율법이나 예언서처럼 하느님의 직접적인 영감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연속이며 똑같은 영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도 복음서에서 몇 번의 저술을 통해 다니엘서와 시편 역시 영감 있는 성경임을 확인해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읽어 보기 바란다.

시편들은 성전 예배 때 사용되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4천명의 레위인이 음악 요원으로 할당되어졌는데, 그 중 숙련된 음악가들을 스물 네 반으로 나누어 2년을 한 주기로 해서 한 반이 한 달씩 교대로 봉사하도록 했다.

각 반의 구성원들은 가수 또는 연주자로 봉사했다. 그들은 파트를 나누어 노래를 불렀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펫, 코넷 또는 플룻과 같은 관악기와 하프 또는 설터리같은 현악기 그리고 팀블 또는 템보린 같은 타악기도 사용했다. 이에 대한 참고로 시편 68편 25절을 읽어보자. 당시의 음악은 오늘날 우리의 음악보다 단순했다. 그러나 그들이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처럼 연주를 잘 수행했으리라고 짐작된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그들의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편이 그들의 영광, 즉 오늘의 찬송 책이었기 때문이다. 시편의 73개는 다윗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의 많은 것들은 다윗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와 재정리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훼께서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라고 말했다. 사무엘하 23장 1-2절을 읽어보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라고도 불렸다.

시편은 찬양의 노래이다. 음악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가사 없이 휘파람이나 콧노래를 하는 때도 흔하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느꼈던 것을 음악이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시편은 주님께서 그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느낌을 표현하도록 주신 노래이다. 그래서 시편들은 가장 널리 읽혀지고 사랑 받아 왔다. 이 책은 우리의 종교적 감정인 경외, 찬미, 은택, 겸손, 참회 그리고 기도 등을 망라하고 있다.

시편 중에는 시 한편 내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도 한데, 본문 19편이 바로 그러하다. 본 반의 시편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명령되고 있다. 시편은 다윗을 통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레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뒤 새 성막에서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송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시편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은 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중에 주님께 의하여 그의 마음에 담겨졌던 것이다(사무엘상 16:13). 양떼에 둘러싸여 창공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다윗의 모습을 각자 상상해보기 바란다.

본문은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아름다운 세계의 질서와 완전성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밤과 낮은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없이 운행되며, 세상의 모든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창조자의 영광과 위대함의 일부를 실감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본문은 제 7절에서와 같이 주님의 법도와 진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기원하며 주님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것에 대한 바램을 노래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의 기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안과 밖이 항상 진실되고 선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늘 배우며 반복해야 할 구절이다.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2)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께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께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 속에 행복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 12)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삼 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일 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숭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술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돛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자.

- *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 * 어떤 관관이 예언자이기도 했는가?
- * 그의 뒤를 이어받은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 이사야에 관한 것은 어느 과에서 다뤘는가?
- * 예레미야는 어느 왕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 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반대적인 일들을 해야 했는가?
- *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 예레미야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 *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레미야는 유다에 있었던 예언자다. 그는 유다왕국 말기 이사야 보다 약 일 세기 후에 예언했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바램은 천국적인 인격을 형성해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적인 인격의 형성은 우리속의 나쁜 것들, 즉 이기적인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모든 예언자들은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가졌지만, 그들이 받아쓰도록 명령된 예언들은 전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민수기 17장 1-8절을 읽어 보자. 여러분은 아론이 유대인의 첫 대제사장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을 때 주님은 아론이 그들의 진정한 제사장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큰 징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몬드(almond)란 주님으로부터 온 선함을 상징한다. 아몬드 나뭇가지(almond rod)란 이 선함으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사야 55장 11절도 읽어 보자.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예레미야는 일생동안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아주 악해져서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게 되어 죽이려고까지 했다. 백성들은 그를 때리며

가축우리나 감옥에 가두기도 했으며,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채 진흙 구덩이에 그를 처박아 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다. 예레미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유일한 예언자이다.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다. 애가서는 5개의 애곡하는 시로 구성되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몰락되는 유다의 비참함을 표현하도록 쓰인 것이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에 포로 신세가 되었고, 그 땅의 가난한 자만이 밭이나 포도밭을 돌보도록 남겨졌다. 예레미야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물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예레미야까지도 억지로 데리고 갔다. 제 43장 이후는 이집트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를 정복했던 적들 즉 바빌론,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케달, 엘람, 다마스쿠스성 그리고 하잘이란 적들이 몰락하는데 대한 예언이다. 그 시대에 바빌론이 가장 큰 정복자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다왕국이 다른 나라들의 잦은 침략으로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가나안땅이 약속된 땅, 즉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이라고 인식하면, 이러한 모든 적들은 우리속의 천국적인 인격을 갇아먹는 나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왕국을 무너뜨린 아시리아와 유다왕국을 무너뜨린 바빌론이다. 적으로서 아시리아는 자신의 고집을 합리화하여 방어하려는 추론능력을 뜻한다. 바빌론은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선택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 외 다른 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크고 작은 악들로서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려는 악들이다.

두 명의 대 예언자, 즉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가 된 상태에서 예언되어졌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서를 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십이권의 소 예언서보다 더 많은 예언이 말씀 안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적인 면은 소 예언서도 대 예언서와 같다.

질문 정리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 3)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뺨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23

에제키엘의 환상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밭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뿔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들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들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횃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들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데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해설

이사야는 히즈키야왕이 바빌론으로부터 온 사절단에게 그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 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하고 그에게 말했다(열왕기하 20:17). 약 백년이 지난 후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히즈키야왕 이후 일곱 왕 중 우찌야만이 선왕이었다. 결국 바빌론은 유다왕국을 정복하기에 이르렀고 여호야킴왕 시대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은 보물과 더불어 유다의 뛰어난 젊은이들까지도 쟁탈해 갔다. 다니엘은 그 젊은이들에 속해 있었다(다니엘 1:6). 여호야킴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어머니, 왕비, 내시들, 나라의 권력층, 은장이 그리고 대장장이 등과 싸울 수 있는 용사들도 잡아 갔다(열왕기하 24:15-16). 그 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을 내세워 유다를 지배하도록 했으나 그가 반역하자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성과 주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를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버렸다.

본문 서두에서 알 수 있듯이 에제키엘은 사제였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하나였다. 여호야긴이 끌려 온지 5년째 되던 해 에제키엘은 포로들 사이에서 예언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에제키엘,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 예언자라고 부른다. 이는 그들의 예언이 12권의 소 예언서에 비해 훨씬 긴 책들이기 때문이다.

말씀 안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주님께 의해 영감 된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도 가졌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며 그것을 기억하여 타인들에게 이야기 해 주려고 애 쓰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우리의 꿈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 내에서 갖는 것에 불과하며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꿈 또는 환상은 우리에게 괴이하게 여겨지며, 그들의

환상은 주님에 의하여 주어지며 의미를 지닌 것이다. 예언자들도 그들이 말한 예언이 백성들에게 내려진 꿈이라는 정도만 인식했을 뿐 예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함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듯이 환상들이 가진 내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읽어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언서와 모든 말씀이 영과 자연의 관계를 상응이라는 언어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 안에 수록된 메시지나 환상들은 우리의 지침이 되며 우리의 계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나이 들어 갈수록 예언서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의 환상은 그에게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인간의 일상 업무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가르쳐 주었다. 본서 10장에서 에제키엘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 거기서 그는 생물들을 거룩들(cherubim)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모세는 궤의 속죄관, 즉 덮개위에 두개의 금으로 된 거룩들을 놓아두라고 명령 받았고, 주님은 거룩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에제키엘의 환상이 일시적으로 보여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 4장을 읽어 보자.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거룩들이란 모든 것을 보시고 설비하시는 주님의 힘을 그려주는 상징적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해서 환히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돌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시편에서 기자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라고 읊는다(시편 139:8).

바빌론에 끌려간 백성들은 불행과 망명 생활에 처해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재 보증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유다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로 전락했지만 소수의 선한 백성들도 남아 있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한 탄핵과 재확인이 있고 난 후 에제키엘은 선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다. 그의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게 있어서 그의 예언의 중요성은 글자가 아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면 설사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행했다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천국적인 인격을 재건하실 수 있다는 진정한 의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생물의 네 얼굴은 무엇인가?
- * 생물은 몇 개의 날개를 가졌는가?
- * 그들의 발은 어떻게 생겼는가?
- * 그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 * 에제키엘은 양 옆의 땅에 드리운 무엇을 보았는가?
- * 바퀴는 무엇처럼 생겼는가?
- * 그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규율되는가?
- *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는 어떤 소리를 냈는가?
- * 에제키엘은 생물들 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는 창공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에제키엘은 보좌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결국 알았는가?
- * 그곳에서 거룩들의 업무는 무엇이었는가?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예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예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질문의 답

1)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발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돛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탈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텐의 동산, 증거궤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성서본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낫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향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밭이 되고 애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해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열 두 권의 책들을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책들이 아주 짧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오바디아서는 1장만으로 이뤄져 있고 어떤 책은 하나의 환상 또는 예언만을 다루며 어떤 책은 전시대를 망라하는 예언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명확한 근거로 인해 이 책들이 영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어떤 책에서는 시대와 장소 또는 예언했던 시대의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열거 되고 있지만,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책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이 없는 책들의 경우 학자들 간에 시대와 장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 책들이 놓여진 성경책의 순서는 우리의 성경과 같다. 포로가 된 시대의 오바디아서를 제외한 소 예언서는 우리의 성경에 놓인 순서가 옳다고 여겨진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예언자들이었다. 하지만 아모스는 유다에서 예언했다. 첫 세 명의 예언자와 요나는 동시대 사람들로 기원전 800년대에 살았다. 마지막 예언자 하깨,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 유다에서 예언했다. 특히 하깨는 성전의 재건을 마무리하도록 격려했던 예언자다. 소 예언서의 일부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말라기서의 제 4장, 즉 구약 성서의 마지막 장은 이와 같은 예언으로 가득하다.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 예언을 참조할 것이다.

예언자 요엘은 유다왕국 히즈키야왕 이전의 3대째의 왕인 우찌야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엘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견책하기 위해 보내졌다. 1장 1-4절,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44절과 47-48절을 보면, 요엘이 말했던 것과 같이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이기적인 바램과 그릇된 생각들이 해충처럼 우리 안의 선한 것들을 갉아먹어 치우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게 되면 결국 천국적인 인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속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후 다른 예언자들처럼 선한 이들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 3장 4-5절을 읽어 보자(개역 성경 2:31-32). 이 구절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도들에게 성신강림절에 방언이 주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이 말씀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사도행전 2:16-21).

요엘은 4장(개역 3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각 개인에게 있을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다. 그분의 오심은 이기심과 악에게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진리를 사모해 온 선한 이들은 그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래 전에 발생하여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특정 국가의 역사적인 기록과 같아서 주님께서 영감 된 예언들의 보존을 설비하셨을까 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주님으로부터 온 전 시대의 모든 이를 위한 메시지이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본문 1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결정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많은 선택과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루는 매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특히 우리는 알고 있는 옳은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주님을 찾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그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천국적인 삶을 위해 진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라는 말씀을 상기해 보자. 주님의 날(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은 결정의 골짜기에서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열 두 권
-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6) 호세아 7) 말라기
- 8) 두 번째 9) 3장(공동번역 4장) 10) 해충
- 11) 주님의 날 12) 우리가 죽을 때 13) 우리의 일상생활 14) 지옥
- 15) 천국

25

요나와 큰 물고기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심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심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삿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뱉아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뱃부리로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위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해설

본문의 내용은 요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 관한 것 중 “요나와 고래”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봤을지 모른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래 대신 큰 물고기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나의 사건 역시 성경의 다른 기적들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단순한 사실보다는 주님께서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요나는 열 두 명의 소 예언자에 속한다. 그의 책은 구약 성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참조하면 그가 소 예언자들 중 가장 이른 시대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책은 역사적인 연대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예언자다. 그는 갓헤벨 지역 출신이었는데, 그곳은 즈불론 지파의 영토에 속했다. 또한 그는 본문 외의 많은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당대 백성들을 위해 전달했으나, 그의 예언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무를 갖게 될 때 본문의 요나와 같이 행동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는 합리적 변명거리를 찾는다. 즉, “사업상 바빠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혹은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라는 따위의 변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와 같이 결국 더 어렵고 힘든 곤경에 빠지도록 한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그가 좋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비겁함으로 타인들이 곤경에 처함을 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에게 있는 미덕인데, 이 외에도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미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보다 더 크고 눈에 띄는 것을 하려고 한다. 본문의 선원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호의적이었다. 그들은 요나로 인해 곤경에 처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들은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는 순간에서도 그들의 하느님께 용서를 먼저 구했다. 그는 주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문에서는 그가 자신의 체험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불행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와 가까이 계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다.

요나는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약했고, 이로 인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곤경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곤경은 자신의 부족함 혹은 주위에 있는 악이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곤경을 올바른 방법 곧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면서 만난다면, 주님께서서는 곤경이 우리를 꼭 움켜잡아 축복으로 나갈 수 없게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곤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결점을 보게 하며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훈련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안내와 도움을 구하게 되고 늘 주님께 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인정도 베풀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단련의 과정은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흡사하다. 운동선수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쉬운 것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이나 쉬운 것만 반복해서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다. 강인하고 튼튼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더 힘든 것을 해내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이러한 자연적인 근육의 단련과 같은 과정으로 단련된다.

요나는 구원된 후 순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3장을 보면, 요나의 선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28-32절에서 주님 스스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다. 또한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8-4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의 배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구원받은 것을 그분의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에 대한 은유적 예언으로 언급하신다. 우리는 위의 구절들을 통해 성경의 어떤 구절도 경시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한다. 즉, 모든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말씀의 내적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답으로 정리

- * 주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는가?
- * 왜 주님은 그를 보내셨는가?
- * 요나는 기꺼이 순종했는가?
- * 그는 어떻게 도망하려고 했는가?
- * 요나가 탄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그 배의 선원들은 곤경에 처한 이유를 어떻게 알아보기로 했는가?
- *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고 제안했는가?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 16)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17) 주님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그린다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 4) 니스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 7) 니스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스웨로 갔다
- 16)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17)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26

주님의 세례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의 소문은 삼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해설

바빌론 제국은 유다왕국을 정복하여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을 남겨둔 채 대부분의 귀족과 관료들 그리고 예술가와 대장장이들을 포함한 기능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포로가 된 자들 중 신실한 사람들은 귀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귀환에 관한 역사를 알려준다. 또한 이는 역대기서에서도 발견된다. 에즈라서 2장 6절을 보면, 고레스왕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을 때 7000명의 하인을 제외하고도 42360명이 귀환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정착하여 부유하게 살게 되자 귀환을 거절했지만 그 중 일부는 얼마 후에 귀환했다. 따라서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즉 귀환으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성전도 이미 재건되어 있었다.

본과에서 공부할 부분은 마가복음이다. 마가는 열 두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가의 히브리 이름은 요한(John)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다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관행을 따라 요한 또한 로마식의 이름을 가져야 했다. 그의 로마식 이름은 Marcus이나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Mark가 된다. 마가가 주님을 직접 알았고 그가 기록한 사건의 일부가 그 스스로 목격했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마가는 전도여행 때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베드로가 주님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가 그에게 들려준 주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토대로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특별한 것은 마가는 3년 동안의 주님의 공생애에만 집중하여서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6절을 읽은 후 본문 1장 2-3절을 읽어보자. 예언으로 약속된 전달자는 세례자 요한이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들은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의 아기가 메시아일 것이며 그들의 아들이 그분의 전달자가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복음 1장 16-17절을 읽어 보면, 요한이 말라기서 4장 5-6절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도 요한이 곧 다시 온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1:14, 17:10-13).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분께 순종하며 하느님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도

구약성서의 말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에 대한 이유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설명하신다. 여러분은 주님의 메시지를 니스웨로 전달하도록 명령받은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기억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말씀을 이방인들로부터 격리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그들 자신의 규정이나 이론들을 첨가하여 글을 읽을 수 있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있어야 할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세례자 요한은 사 백여 년 만에 유다 땅에 나타난 첫 예언자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들었던 옛 예언자들의 모습으로 요한이 나타나서 사는 것을 본 후 그가 진정한 주님의 예언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곳, 그의 의복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들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은 먼저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죄악들을 지적했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 다음 그는 요르단 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서 물이란 주님께에서 비롯된 진리를 상징한다. 따라서 물세례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을 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주님은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서 세례를 기독교인의 표시로 삼았다. 여러분은 본문 7절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나타난 놀라운 징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 징조를 본 세례자 요한과 강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며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이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술하고 있다. 이 후 그분의 삶은 천국에 대하여 증거 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그분을 따랐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그분께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왔다. 주님은 자신이 오래 동안 지상에서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선택된

제자들 중 처음 네 명을 어떻게 발견하시고 부르셨는지에 관하여 언급한다. 이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아 그리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이다.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자.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냄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
-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27

새 포도주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놓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 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갔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켜겨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해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본 반의 공부를 시작하자.

- * 주님이 자란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는 어떻게 그 길을 준비했는가?
- * 요한이 세례를 준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열 두 지파 중 어떤 지파가 요르단 지역에 정착했는가?
- *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들을 어디서 발견하셨는가?
- *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언급되고 있는가?
- * 중풍 병이란 무엇인가?
- * 중풍 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 주님은 그를 위해 무엇을 처음으로 행하셨는가?
- * 주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 학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 *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어떠한 점을 지적했는가?
- *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 * 본문에서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을 비평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갈릴래아 해변의 가파르나움을 근거지로 삼으셨다. 그 당시 거룩한 땅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래아의 세 구역으로 나뉘져 있었다. 그 중 유다는 유다 백성들이 가장 밀집된 곳이었다. 북쪽에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으나 남쪽이 훨씬 인구가 많았고 행정의 중심지였다. 사마리아는 과거 아시리아가 강제 이주시켜 놓은 동쪽 출신 외국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갈릴래이는 “이방인들의 갈릴래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그곳에 많은 그리스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유다지역에 속해 있었고, 나자렛과 가파르나움은 갈릴래아 지역에 속해 있었다. 주님의 선교 사업은 대부분 갈릴래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주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내려 가셨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자주 요르단 강을 건너시거나 갈릴래아 바다를 향해하셨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갈릴래아로 가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온갖 종류의 병들을 치유해 주셨다. 본문에서 주님은 가파르나움으로 되돌아 가 계셨는데, 그분의 명성이 높아지자 가파르나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아 왔고 그중에는 불치병에 든 자들도 있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율법학자)란 성경의 사본을 제작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든 책이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자랑했고 그로 인한 일종의 권위 의식도 갖고 있었다. 바리사이파인(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개혁주의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율법과 규정들을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님은 이러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이 모두 위선자들이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13-33절, 특히 23-28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시자 그분을 위협적인 인물로 여겼고, 주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함정을 파는 질문을 시도했다.

신약시대의 세리란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부과해 놓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채용된 유대인들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규정, 특히 세금 규정에 불만이 많았으므로 세금 수납자로 채용된 유대인들을 몹시 경멸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마태가 세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다는 것이다. 주님이 도움을 베풀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지게 됨을 경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아만족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문을 잠가버리는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식에 대한 주님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단식이며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식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음식을 먹지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단식은 대체로 기름진 음식이나 즐겨하는 음식을 일정기간 동안 금함을 의미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식이란 죄의 회개와 주님 앞에 겸허한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을 했다.

본문 21과 22절의 의미를 살펴보자. 낡은 천과 새 천에 관한 것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서 낡은 천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도주를 담은 “병”은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은 현대의 우리가 사용하는 종류의 병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부대였기 때문이다. 이 가죽부대란 가죽을 벗길 때 다리 쪽을 통째로 벗긴 후 액체를 담을 수 있게 한 쪽은 단단히 봉하고 다른 한 쪽은 주둥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죽 부대는 사용함에 따라 점점 얇아져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의 발효 작용으로 인해 낡은 가죽부대는 쉽게 터지고 만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이 중시 했던 율법에 더 하여 그들이 만든 규정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강조하는 것은 가죽 부대 안에 든 포도주로 의미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낡은 천에 새로운 천을 기워서 옷을 만들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영웅인 다윗이 안식일의 규칙을 깨뜨렸음을 상기시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새로운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우리가 그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6일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행하지 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시며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 22) 예배드리고 주님에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열 두 사도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물려 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 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해설

다음 질문을 토대로 공부 해 보자.

- * 공과 27장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병은 무엇인가?
- * 서기관(율법학자)들이란 누구인가?
- * 바리새인(바리사이파 사람)이란 누구인가?
- *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미워했는가?
- * 그들은 어떤 일로 주님을 비판했는가?
- * 새 포도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 * 포도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회당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 * 주님은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이 부르신 첫 번째 네 제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공과 27장에서 공부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셨던지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가셨음이 증명되고 있다. 본문 3장은 2장이 끝나는 때와 같이 안식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의 흠을 잡기위해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쫓고 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첫 네 제자들이 모두 어부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또는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님은 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로부터 피해야 만 하셨는데, 그럴 때면 미리 준비된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셨다고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호숫가 외에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자주 사용하셨던 장소가 언급되고 있다. 13절을 읽어 보면 산상설교의 어느 구절을 연상케 한다. (마태복음 5장 1절)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산 위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에

올라감이 상응하는 것 때문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산 위에 오름이란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감을 의미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평면에서 들어 올려져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자란 배우는 자다. 본문에서는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 나가서 전도할 열두 명의 제자가 임명되고 있다. 그들은 후에 열 두 사도라고 불리는데, 이는 사도란 “내보내지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열 두 제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그들 중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이었는데,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분리하여 그들과 동행할 때가 많았다. 특별히 안드레이는 베드로의 형제이며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이기도 하다. 두 번째 네 명은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그리고 토마이다. 필립보는 갈릴래아 바다 북쪽 끝 가과르나움 근처 마을인 베싸이다 출신이다(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을 보면, 필립보가 나타나엘이라는 제자를 주님께 데려옴을 알 수 있다. 나타나엘은 바르톨로메오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갈릴리 출신의 나타나엘이 예수의 제자들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마태오에 대해서는 27장에서 공부했다. 그는 복음서 첫 권인 마태복음의 저자이다. 토마는 요한복음 20장 24-29절에서 나오는 일화로 유명하다. 의심 많은 토마리는 말처럼 그는 주님의 육신을 그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여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다. 이 야고보를 앞의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다. 그는 후에 초대 기독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에 첫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맡았다. 타대오라 불리는 제자는 레비어스(Lebbaeus) 또는 유다(Juda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는 아니다. 그리고 누가에 따르면, 타대오는 작은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한다. 타대오는 유다서를 썼다. 시므온은 때로 혁명당원 시므온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 즉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롯 유다이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제 21절에서는 주님의 친척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미쳤다”하는 소문을 들어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다. 22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사이파인들이 예수의 권능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떠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돌았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자칫 “그는 분명히 무슨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거야”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이 교훈의 의미는 사람이 때로 진실을 진실로 보는 대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주님은 29절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강조하고 계신다. 주님은 진리와 진실을 모독하는 행위는 진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께에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께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걷어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균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배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해설

다음 질문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자.

- *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
- * 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 * 주님은 어떤 비유를 가르치셨는가?
- * 주님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누구에게 해주셨는가?
- * 본문의 비유에서 씨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여러 종류의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씨가 생산하는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11절과 12절은 주님이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주님이 의미한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무엘하 12장 1-19절을 읽어보자. 당시 다윗왕은 큰 죄를 범한 상태였다. 만일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물었다면, 다윗은 화가 나서 나단을 처형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단은 슬기롭게도 다윗 왕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는 다윗 왕의 판결을 구했다.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정 없는 부자의 욕심을 나무라며 그에게 벌을 내려야한다고 선언한다. 그 때 나단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죄를 물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보면 모두 비유이다. 하지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관한 기록들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읽고 그들을 판단한 후 “이것은 좋은 행위이고 저것은 못된 것이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해 주님께 거둬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저들을 위해 그렇게도 잘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야.”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 바로 “네가 바로 네가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록 옛사람들과는 다른 형태와 모양을 띠었을 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자신의 과오는 덮어두고 남의 과오는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유(21-22절)는 언뜻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23-25절을 읽어 보면, 그 둘이 서로 연결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은 진리를 상징한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 심어진 씨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이 씨(진리)는 우리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된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언어는 실상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교훈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씨에 해당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밟아 다져진 길 같이 이기적이고 무디다면, 뿌려진 주님의 씨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틈도 없이 이기적인 생각을 상징하는 새들에게 먹혀버리고 만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읽고 즐기며 뭔가를 즉각적으로 생각해 내나 금방 시들어져 버리게 하는 돌밭 같다면, 주님의 씨는 금방 생명을 잃고 말라 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배운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하나 그 첫 시험에 풀썩 주저앉으면,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과 같아서 주님의 씨가 짝은 티우지만 결국 거짓의 그늘에 가려져서 시들어 버리고 만다. 마지막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은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여 그분의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많은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문의 두 가지의 비유는 모두 씨에 관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모두가 즉각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자고 일어나듯이 우리 영혼의 삶 또한 밤과 낮으로 나뉜다. 우리 속의 선이 깨어나서 활동하는 때가 낮이라면,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는 밤에 해당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낮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주님은 그 때에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진리라는 씨를 가꾸신다.

이러한 주님의 행사는 모두 섭리에 의해서 이뤄지므로, 우리는 이 씨가 언제 어떻게 심어졌으며 언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질문 정리

- 1) 비유란 무엇인가?
- 2)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가?
- 3) 주님은 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 4) 본문의 비유 중 셋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5) 씨란 무엇인가?
- 6)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 7) 주님은 등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하는가?
- 9)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 10)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11) 곡식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 12) 누가 곡식을 자라도록 해 주는가?
- 13) 주님은 겨자씨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이 씨와 연관 지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진리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질문의 답

1) 감추어진 의미를 가진 이야기 2) 구약성서에 48개, 신약성서에 40개 3) 처음에는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같이 보이나 나중에는 진리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씨 5) 하느님의 말씀에서 온 진리 6) 각기 다른 마음 7)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져야 한다 8) 계발시켜 주는 진리 9) 자신의 결점을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10) 사용 안 된 것은 빼앗긴다 또는 등불이 꺼진다 11) “처음에는

씩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찬다.” 12) 하느님
13)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14)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 들일 만큼 된다.” 15) 어떤
진리는 처음에 우리에게 하찮은 진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차차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둥이 된다.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서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찧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아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 *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 그 문제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 *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떤 방식으로 붙들어 두려고 했는가?

본문에 있는 게라사란 갈릴래아 해변의 작은 마을로 주님의 기적들이 실제로 베풀어졌던 곳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가다라 지방 또는 게라사 지방이라고 불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다라가 그곳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성서 지도에서 가다라 지역을 찾아보자.

주님시대의 무덤들은 통상적으로는 시내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시체들이 부정하여 그것을 만진 사람들이 부정을 벗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마치는 7일 동안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민수기 19:11-13). 그리고 무덤은 그 안에 시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본문의 귀신들린 자는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근처에서 살았던 것이다.

우리는 한번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무엇이 나를 덮어씌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리에 맞지 않는 거동을 보일 때 “너 오늘 뭔가에 씌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스웨덴북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가끔 ‘무언가에 씌어 진’ 채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북은 지옥에서 사는 악한 영들을 악마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산 자들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찬양과 타인에 대한 미움뿐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악마들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 이는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그로부터 비롯된 나쁜 생각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악령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의 부추김에 빠지는 것을 즐겨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불리일으킨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기심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 곧 자유 의지로서 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원하면 이러한 악령들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시험들을 극복하심으로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악령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악령들이 사람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악령의 영향력을 극복해야한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야하는 방법을 모두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악마에게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시자 악마는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답변에는 악과 거짓은 결코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하게 되어 나중에는 스스로도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동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이나 충동은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은 거짓을 부르고 거짓은 악을 불러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악마 곧 악의 이름은 군대인 것이다.

주님께서 악마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악마는 주님에게 돼지 무리로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악마는 돼지 무리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모두 호수로 뛰어 들어 죽고 만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돼지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돼지란 어떤 생각 없이 자신의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우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주님이 악마들로 하여금 돼지 속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돼지 떼가 의미하는 것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들의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악마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우리의 영혼이 결국 그들의 무리에 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 주님은 갈릴래아 바다를 건너 되돌아 오셨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쌌다. 그 때 아이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아이로가 진실로 주님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신다고 믿었음을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섰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아이로의 집에 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발생했다. 무려 12년간이나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겹옷을 만짐으로 치료되었던 것이다. 겹옷이란 우리의 애정을 입히고 있는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의 겹옷이란 말씀을 의미한다. 이는 말씀이 주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겹옷을 만진다는 것, 특별히 그분의 겹옷의 가장자리 곧 옷자락(누가복음 8:44)에 손을 댄다고 함은 우리가 계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안의 결점들과 모든 악함을 깨끗이 극복하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계명에는 우리 안의 모든 나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과 일행들이 아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동행하셨다. 주님은 그 집에 당도하자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때 소녀는 열 두 살이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영계에서 깨어나기 전에 있는 잠깐 동안의 수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님은 사실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기적들을 수행하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생명이 주님으로부터만 근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

질문 정리

-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야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 3) 3
- 4) 요르단 건너 지역
-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 7) 군대

-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서본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들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 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아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 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쉼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헤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들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자.

- * 「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몇 명의 제자를 사도로 뽑으셨는가?
- * 「사도」란 무슨 뜻인가?
- * 주님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지니고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셨는가?
- * 마을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듣고 헤로데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생각해 두어야 한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가 예언자임을 믿었음은 본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헤로데왕 역시 그러했다. 본문의 헤로데는 주님의 유아시절 그분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헤로데의 아들이다. 이 헤로데는 요한의 말을 청중해서 많은 조언을 받은 자였음을 20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이 그의 특별한 죄악을 질책했을 때 그는 듣기를 거절했고 심지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 뒤 그는 부주의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은 궁내에 많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라 어길 수 없어서 요한을 죽이라고 명하게 되었다. 헤로데는 의를 행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주위 사람의 이목과 자신의 체면을 중시했다.

주님이 보낸 사도들이 그들의 여행에 관한 성공적인 보고를 할 때 주님은 한적한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쉬시고자 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보고 따라왔다. 군중들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 종일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오병이어로 오천 여명의 군중을 먹이는 기적 정도는 충분히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역시 주님으로부터 옴을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공급되어야 하는 양식보다 더욱 중요한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인데, 이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탱시켜 주며 발달시켜 주는 선함과 진리이다. 주님은 산상 설교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만족할 것이라” 하였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도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굶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육신은 이 세상에 두고 영혼으로서 저 세상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은 상태로 저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부분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후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자연의 질서도 지배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언급된다. 주님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물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님께서 물위를 걸으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크게 놀랐는데, 이는 마가복음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푸는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권능이 곧 하느님의 권능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의 마음 역시 이들과 같이 완고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며 만물이 그분의 지배하에 있다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심과 우리의 삶을 순탄케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의 바다가 곧 잠잠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답으로 정리

- *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군중들을 어떻게 하자고 주님께 간청했는가?
- * 그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 주님은 빵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 * 빵과 물고기를 들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는가?
- * 다 먹고 난 뒤 몇 광주리나 남았는가?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4) 그의 목을 베었다 5) 헤로디아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각기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10) 오십 명 백 명씩 떼 지어 앉히셨다 11) 축사하시고 떼었다 12) 오천 명 13) 열 두 광주리 14) 베싸이다 15) 역풍을 만났다
-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18) 흘트려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에게서 찾는다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배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
 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
 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겹옷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해설

본 반의 주제는 “작은 어린이”이다. 그 이유는 본문 전체의 의미가 14절과 15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45절까지 계속되는 사건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의 어린 아이들이란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고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불순종을 하지 않는 어린 연령의 무지한 순진무구한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순진함과 신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기심과 불순종임을 인식할 때 순진함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기심과 불순종은 악의 근원이 되며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일의 원인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울게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세상에서 첫째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함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위의 사항이 본문에서 어떻게 예증되는가를 살펴보자. 본문에는 먼저 결혼에 관한 가르침이 언급된다. 이혼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 신앙인들 중에도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다. 이혼을 하는데 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늘어놓지만,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상대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이혼으로 끝맺어

지기 십상이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다. 부부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해서 명심하게 되면, 각자의 행복 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결혼생활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언급된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고 그분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주님은 그를 대견하게 생각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점을 보셨다. 부자 청년은 의를 행하고 있음을 스스로의 자랑으로 여겼고, 자신과 재물은 신뢰했으나 주님은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 순종함은 있었으나 그것은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신뢰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자 슬피 울면서 돌아갔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이 남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이러한 해석을 믿고 개인의 소유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실천하는 자신들이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은근히 자화자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은 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무라시는 것은 그분 보다 재물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삶에 있어서 선택지는 것보다 부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 디모테전서 6:17-18).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평가 할 때 그 사람의 인품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부나 지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 세상, 즉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할 그곳은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한 어떤 물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닦은 우리의 인격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 이유는 비록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천국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선택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부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37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물으셨다(38절).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충분히 그럴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쳤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부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안 제자들은 그들에게 화를 냈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 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길은 다름 아닌 섬김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름을 의미한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십자가를 짊어 질 것”을 말씀하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가운데서 수차례 언급되는 이 명령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란 고통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44절과 45절을 통해 십자가를 진다고 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려는 대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단번에 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주변에 있는 친구, 친척, 부모 형제 또는 이웃들에게 날마다 실천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순진이란 “해치지 않음”, 즉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순진함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경시하지 않고 그에 맞서 싸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해당된다. 46-52절의 기적 또한 본 반의 교훈과 관련된다. 소경인 바르티매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간절히 외쳤고, 그의 외침을 들으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육체의 일부인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았다’ 또는 ‘이해했다’로 해석되는 영어의 ‘I see’가 있다. 두 번째 의미에서 눈으로 본다고 함은 우리의 지성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는 영의 눈을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 뜨인 바르티매오에게 ‘가라’, 즉 네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르티매오는 눈을 뜬 후 그분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람
-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때문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겂옷을 벗어 길 위에 퍼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

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자.

- * 성서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 * 복음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 우리는 부활주일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 과일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 주님은 어떤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제자들은 주님이 타실 나귀의 등 위에 무엇을 놓으셨는가?

- * 군중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무엇을 뿌렸는가?
- * 그들이 꺾어든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 가지인가?
- * 군중들은 주님께 뭐라고 외쳤는가?
- * 호산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가?
- *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 어떤 일을 하셨는가?
- *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여러 구절들이 구약성서에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예언들 중에는 그분의 지상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까지도 언급한 구절들이 있다. 시편 22편 1-18절과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자.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지상생활 중 마지막 부분을 말해 주고 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이겨내셔야만 함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그분께 하는 것을 내버려두심으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행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배려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주 시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그분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본문에 등장하는 망아지는 나귀 새끼이지 말 새끼가 아님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나귀나 노새를 왕이나 판관이 타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 판관기 5장 10절과 10장 3-4절과 12장 13-14절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을 읽어보면 이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특별한 예언이 즈가리야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즉 그들의 왕이요 판관임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환성을 올리며 그분을 환영했다. 이 광경은 그야말로 위엄이 넘치는 행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주님을 환영했던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분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나아가 영원한 유대인의 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주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주님의 왕국은 인간의 심정과 지성 안에 존재한다. 요한복음 18장 33-37절까지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를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종려주일에 대대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천국의 왕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 등을 돌렸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다.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일주간을 “성주간”이라고 부른다. 주님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는 주님의 친구들, 즉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킨 나사로가 있어서 그분께서 편히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하신 까닭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열매”가 선한 행위를 상징함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사용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선을 남에게 행치 않는 이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은 비유로서 우리 영혼의 성장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 주간의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 가셨다. 이 때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공부할 것이다. 식사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러 게셋마니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분의 적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날은 그들이 주님께 환호를 보내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겨우 5일째 밖에 안 되는 날이었다. 이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변덕처럼 보이거나 사실 그렇지 않다. 무분별한 군중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막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3년간이나 쌓여왔던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들의 그분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결과인 것이다.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내의 일부 선한 사람들은 주님의 적들에게 대항하여 싸울 만큼 용감하거나 강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제자들과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에 상응되는 생각이나 느낌이 우리들 각 개인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선한 의도도 있지만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욕망도 있다. 우리가 이 성주간

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선한 것들과 이기적인 것들을 헤아려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것들을 던져 버리고 그분께서 주신 선한 의도들을 강건케 하기 위해 노력하자.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루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질문의 답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34

성 만찬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가특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시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계셰마나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49.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의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패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패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주님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 * 주님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분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왜 제자들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 * 주님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거지 바르티매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 * 주님은 성전에 가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 * 주님은 이 주간 동안의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 *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 *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 과월절(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과월절이 그들의 가장 큰 축제일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과월절을 기념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진 마지막 과월절 행사 때 그분은 과월절 대신 지켜야 할 새로운 기념일을 그들에게 제정해 주셨다. 누가는 이일에 대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22장 19절)”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주님께서 “빵은 나의 몸이요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깊은 신앙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 특별히 죽음까지도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려드는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시험에 대적하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에 노예화된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해주신 것이다. 지옥의 노예가 된 상태는 과거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후손들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회들은 각기 지정한 특별한 때에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한다.

주님의 성찬은 거룩한 친교라고도 불린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혼자 먹는 것 보다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서로 음식이상의 것으로 친교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진실 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워짐에 따라 더해지리라고 믿는다.

만찬 후 주님은 계셰마니 동산으로 올라 가셨다. 계셰마니에서 있게 되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아주 힘들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대한 가장 좋은 본보기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쉬운 길을 선호하며 사랑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많은 시험을 허용하심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어려운 일들을 용감하게 관철해가야 할 것이다.

열두 제자중의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 이다. 유다는 주님의 적들을 그분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누가 주님이신지도 알려 주었다. 주님은 그렇게 잡히셔서 그들의 심문과 재판관을 받으시고 십자에 못 박히신 것이다. 51-52절은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젊은이가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심문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떠한 죄도 그분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대사제는 예수께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었고, 예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시인 하시자 곧 신성모독의 죄를 물어 그분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 그분의 적들에게 심문을 받으시던 장소에 베드로도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야 만다. 여러분은 그토록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도 연약한 인간일 수 있을까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함을 알면서도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거나 의로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여겨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그릇된 길임을 알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아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께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 6) 영예의 자리
- 7) 모든 이를 섬김
-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 12) 이층방
-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 18) 계셰마니
-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 20) 가리옷 사람 유다
- 21) 입마춤
-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3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데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었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어서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공부하자.

- *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 * 주님은 무슨 요일에 이 날을 기념하셨는가?
- * 이날 주님은 어떤 새로운 축제를 구성하셨는가?
- * 어느 사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 유다는 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잡을 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 * 누가 주님을 첫 번째로 심문했는가?
- * 대사제제 의하면 주님의 죄는 무엇인가?
- * 무능해졌다고 느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는가?
- * 빌라도는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 빌라도는 당시 어떤 다른 죄수를 감금해 두고 있었는가?
- * 그 죄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 백성들은 누구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는가?
- * 주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 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는가?
- *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켜 본 주님의 적들은 그분께 무엇을 해 보라고

말했는가?

- * 주님이 죽으시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그 때 로마군대의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 주님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요청한 자는 누구인가?
- *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는가?
- * 누가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가?

당시 히브리 국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사실 당시의 로마는 서쪽 세계를 정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된 각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훈련된 군대와 총독을 파견해 두었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으나 사형과 같은 사법적인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일임했다. 그래서 사제들과 바리사이파인들은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 그런 연유로 주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심문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빌라도는 주님께에서 죄를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분을 석방하고자 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입각하여 과일절의 관습으로 누구를 풀어주어야 하는가를 유대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과거 스스로를 구출하셨듯이 십자가에서도 스스로를 구해 내실 수 있었다. 누가복음 4장 28-30절, 요한복음 8장 59절과 10장 17-18절과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0-11절을 읽어 보자. 이상의 구절을 참조하면, 유다가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구출해 내실 것이라고 예상했음이 더욱 확연해진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께서 정말 감옥에 갇히시자 대사제에게 가서 받은 은전 서른 닢을 되돌려 줌으로써 그분을 구해보려고 시도했고 이를 실패하자 성전에 돈을 내동댕이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았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7:3-5).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 즉 죽음이라고 부르는 삶의 마지막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먼저 죽음을 받아들이신 후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 나셔야만 했다. 그리하여 죽음이란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의 단계일 뿐임을 보여 주심으로써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적들이 그분의 육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허용하신 까닭은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주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를 희망하면서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리아라고 불리는 두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 나셨다는 사실을 제일 처음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와 닿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인간 존재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태생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을 인식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일들까지 행하도록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경악케 하는 대부분의 범죄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기심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중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범죄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주었다면, 그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절과 정직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생활화하도록 훈육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자신 안에 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미워할 수 있도록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은총이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다.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해 주시려고 애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조소를 당하기도 하셨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 두어야 할 사항은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를 건져 내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악의 권세를 누르는 데 승리를 이루셨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골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겜옷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겜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께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골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제비뽑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받쳐함

36

부활하신 예수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해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자.

- * 본문은 어떤 특별한 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 * 부활절 전주 일요일은 무슨 날인가?
- * 종려주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어떤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왜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 왜 사람들은 그토록 빨리 주님을 등졌는가?
- * 목요일 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주님은 기독교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셨는가?
- *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 *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가?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의 소유인 무덤에 놓여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돌을 굴러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입구를 봉인한 후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 경비병을 배치해 두었다.

부활주일 사건의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서로 상이하게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각 복음서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보완해준다. 부활에 대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단순하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들보다 조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타 복음서에 있지 않는 몇 가지 사실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일어나셨음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과 유다를 제외한 열 한 명의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볼 때까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문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복음20:29)”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에 살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셨으나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당대에 거의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으나 막상 그분이 적들에게 붙잡히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분의 죽음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죽은 뒤 되돌아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하고 말하며 신앙인들을 시험하려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증거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까닭은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함을 우리에게 명확히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깨어난다. 부활이란 이와 똑같이 아주 단순한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지상에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그 이유는 저 세상에서의 삶에서 물질적인 육체는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이다. 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몸은 우리의 정신체로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세계에서는 위선적인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곳과는 달리 우리의 속에 든 진짜 인격, 즉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그대로 표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이기적인 감정과 같이 악에 속한 것들을 제거해 내야만 한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너무 놀라서 허깨비를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 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누가복음 24장 39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통해 주님께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요한은 복음서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전한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고린도전서 15:42-44)에는 주님께서 자연적인 몸과 영의 몸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것을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했던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주님의 승천하심이 부활 직후 즉시 거행된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은 부활 후 사십 여 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뒤에 승천하셨음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에 관한 징조들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당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세상만이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적에 의해 믿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바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이성으로 그분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세계 역사를 변하게 만든 것과 우리의 삶 안에 영계가 실재한다는 것 그리고 영계는 사실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들의 증언과 역사적인 사실을 읽고 이해하여 부활 주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서 더 많은 은택과 신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데?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에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할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기
때문.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훤 따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니다.

해설

복음서들과 계시록 사이에는 22권의 책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책으로 가장 긴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에는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한 사건들과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포함한 22권의 책들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다소 견해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과 서간서들 역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으나 본 과에서는 이 책들을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이 책들에는 내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서와 서간서들 뒤의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아주 노령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유다는 십자가의 수난이 있기 전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사도들은 전도여행 중에 순교 했다.

요한이 주님에 의해 보호되었고 그를 통하여 말씀의 마지막 책이 주어지도록 그분께서 섭리하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계시를 받을 당시 요한은 소아시아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파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된 상태였다. 성서 지도를 보면 이 섬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여행했던 곳들과 요한이 지휘 감독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의 지리적 위치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들이 서로 아주 달랐음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좋은 특질은 칭찬하시고 그들이 이미 빠져버린 악들은 지적하시며 그것들을 고치도록 경고하시게 된다.

요한에게 맨 처음 주어진 환상은 주님에 관한 기이한 환상이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의 그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분이 바로 그가 따랐던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인식할 수 있었다(1:8). 이 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그런 다음 기독교회가 겪게 될 영적 과정에 관한 길고도 상세한 환상이 있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힘과 악의 힘 사이의 전쟁,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교회가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명화를 감상하듯이 요한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요한의 영적 눈앞에 전개되도록 한 이 기이한 환상들을 거둬들이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요한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1:10, 4:2). 본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해당된다.

에제키엘은 요한보다 약 칠백 년 이전에 살았던 예언자였으나 요한과 유사한 환상을 보았다. 에제키엘서 1장 4-18절을 읽고, 두 사람의 환상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보

기 바란다. 그리고 10장 1절을 통해 네 마리의 생물이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보기 바란다. 우리는 예배에 이 생물들이 말한(8절) 말씀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11절 역시 성서 낭독 후의 답창으로 자주 사용된다.

우리는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통치하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이가 그분을 예배함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려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답으로정리

- *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지자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 * 옥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 * 옥좌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 *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 * 옥좌 둘레에 어떤 생물이 있었는가?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 15) 에제키엘 1장 16) 거룩들
- 17)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기록하시다. 18) 예배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38

봉인된 책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해설

여러분은 옥좌가 심판을 표현함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수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모두가 심판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 합당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들의 의미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주셨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판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행실만이 아닌 속에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들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속에 든 것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 뻗어 있는 것을 몰라보고 지나칠 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저 세상에서는 지상에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요한의 환상에서 심판은 생명책을 여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요한이 본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또는 책은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주님의 생각과 느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생각들로 옷 입혀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심정이 악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의 글자 안에는 선함을 호소하는 것과 악을 내리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영적인 성장정도에 따라 이해되게 된다.

다음의 간단한 예로 말씀이 어떻게 써진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하자. 때로 우리는 친구나 어린아이에게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없는 순간에 놓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빙빙 돌려서 그들에게 말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빙 돌려서 하는 그 이야기 안에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담아 둔다. 따라서 친구나 어린 아이는 당장은 이야기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들이 차차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연장자일 경우 상대가 아무리 돌려서 말하더라도 말하는 순간 그 진의를

금당 파악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은 바깥 측면으로는 하나의 책이나 안쪽 측면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안쪽의 의미는 말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열려지지 않는다. 말씀의 속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기심과 세상적인 물욕이다. 이는 말씀의 속뜻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물욕이 적으면 적을수록 말씀의 속뜻을 더욱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 갔기 때문에 말씀이 결국 봉해져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어 보면, 이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새로이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열려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후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이루셨고(마지막) 새교회로 하여금 열려진 말씀 위에 기초를 두도록 하셨다.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 장차 말씀이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분의 권능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같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는 그분이 인간에 의하여 죽음에 놓여 지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죄 없는 어린양 같이 순진하셨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공부했다.

제 14절에서 생물들은 아멘이라고 한다. 아멘이란 “그렇게 되어지리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나 찬송을 끝맺는 것은 방금 불렀던 노래 또는 기도가 진심이라는 것과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음을 의미한다.

문답으로정리

- * 왜 요한은 슬피 울었는가?
- * 천사들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양에서 독특한 것은 무엇인가?
- * 양이 가진 일곱 뿔과 일곱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이 무엇이라고 말해지는가?
- * 그들이 부른 새로운 노래는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뿜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뿜,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15) 아멘

심판과 거룩한 성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해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자.

- * 요한은 옥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무엇을 보았는가?
- * 이 책은 무엇인가?
- * 몇 개의 인으로 그 책은 봉해졌는가?
- * 누구에 의하여 그 봉인이 떼어질 것이라고 말해졌는가?
- * 왜 주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가?
- * 왜 주님이 양이라고 불리시는가?
- * 그리고 나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옥좌 앞에는 누가 서있었는가?
- * 죽은 자는 어떻게 심판되어지는가?
- * 생명의 책에 쓰여 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요한은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제 6절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일컫고 계시는가?
- * 그분은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요한은 심판에 대한 큰 계시를 보았는데, 그것은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봉인된

책이 펼쳐짐으로 인해 수반되는 것들이었다. 각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큰 전쟁과 파멸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상응으로 설명하자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곧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우리의 심정 속을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일련의 일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안 깊은 속에 든 생각들과 감정들을 감출 수가 없음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 하는 교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속 깊숙이 들어 있는 이기심을 사냥해서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시험을 의미하며 악과의 전쟁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전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러한 전쟁의 핵심은 우리안의 선함을 파괴하는 것이 이기심의 목적이요 주님과 천사들은 그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본문 중 제 2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후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영계로 가게 될 때 지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영계에서 깨어나 지상에서 천국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천국을 선택하게 되고 지옥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지옥을 선택하게 됨을 보여준다고 한다. 설사 스웨덴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책이 요한의 환상 중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이란 바로 우리의 삶이 기록된 책들이다. 이 책들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책들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형성해 왔던 우리의 인격 바로 그 자체이다. 생명의 책 안에 쓰인 것을 발견치 못한 이들이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인격들을 형성해 보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을 더욱 더 이기적이 되도록 허용해 두고 살아 온 이들을 의미한다.

“불 못(바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낼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떠올려 보면 불 바다가 상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쁜 의미로서의 불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행복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인 이기적인 사랑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이 타는 바다란 악을 옹호하려고 발버둥치는 이기적

인 욕망들이 들끓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내세우며 행하려고 노력한 이들은 스스로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고 그들의 미래는 아주 달랐다. 제 21장과 22장은 이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 21장에서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바깥 삶의 모든 면에 있게 되는 행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선하면 천국에 있게 되고 위의 두 본성을 모두 지닐 수 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생각하려 들지 않는 곳이다. 그곳의 모든 사람은 안팎으로 다 행복하다. 새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인 새 예루살렘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에서 기원된 것이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 곧 주님이 말씀을 여시고 임마누엘 스웨덴북에게 말씀의 글자 속에 감춰졌던 진리들을 우리를 위해서 받아쓰게 하신 새로운 교회에 관한 지식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다 깊은 진리들의 일부를 공과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과를 계속 공부하여 보다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온 모든 것을 따라 살아 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들어 갈 때 천국에서 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는 본문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1장 마지막 절과 22장 14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알파(Alpha)와 오메가(Omega)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이시다는 말은 그분이 만물의 시작이며 창조된 모든 것이 바라보는 대상, 즉 마지막이시라는 의미이다. 산상설교의 열 가지 복 중 4번째에서 이에 대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마태복음 5:6). 또한 요한복음 4장 13-14절도 찾아보자. 생명의 물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값없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리에 목마른 자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진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 17절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3절을 읽어 보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전해 받고 우리의 부모는 선조로부터 그것들을 전해 받았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것을 유전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성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일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아들을 보며 부전자전이라고 말하거나 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딸을 보며 모전여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다. 즉, 모든 인간은 주님을 닮는 것이 존재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의 목적은 인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나쁜 경향성들을 극복해냄과 더불어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스스로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나는 삶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 17) 진리에 목마름

40

새 교회 날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혀 주심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설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에게 주어졌음을 보았다. 일곱 교회들은 모두 각기 달랐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이 곧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 교회는 지상에서 기독교회의 시작으로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는 실제로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었다. 그래서 요한의 환상은 전체적으로 기독교회와 그 교회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회도 시간이 흐르자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는 옛날의 교회들이 기울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교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그들 삶의 중심에 두는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느님 대신 인간을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요한의 환상은 대다수의 인간들이 스스로를 아주 똑똑하다고 여기게 되어서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순진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교만한 이들의 언쟁에 대답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러한 타락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 순진하고 선한 이들은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즉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라고 하신 구절에서의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약속하신 두 번째 오심을 이루셔야 했다.

두 번째 오심은 주후 1770년 주님께서 그분께 바쳐진 종 스웨덴북을 통해서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여심으로써 거행되었다. 이 내적인 의미는 구름을 통과하여 오고 있는 빛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아름다운 환상은 주님께서 밝혀 주신 새로운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그것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삶을 점검해 가는 이들의 삶 속에 건설될 지상의 (마지막) 새교회이다. 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1770년 6월 19일 주님에 의해 열 두 사도가 영계 전체로 보내져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를 상기 하기 위해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한다.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젠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리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스웨덴북을 통해 알게된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